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 관한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 Research on the *DaebanggwangWongagYagsojuGyeong*
Stored at Baekcheon Temple

金 聖 洙 (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
| 2.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개요 | 形態書誌 |
| 3.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기존 판본 | 6. 結 論 |
| 4.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 <참고문헌> |
| 角筆 및 口訣 사항 | |

<초 록>

이 논문은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百泉寺本)’에 관한 書誌的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百泉寺本の 板式과 字體 등은 ‘<보물 제891호> 『大方廣佛華嚴經疏』’와 恰似하고, ‘<보물 제893호>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과 同一함으로써, 宋板本을 翻刻한 인쇄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高麗時代에 간행된 宋板 翻刻本이다.

2) 百泉寺本에는 高麗時代의 角筆과 墨書口訣 등이 記入되어 있다. 角筆은 高麗時代에 기입된 것이 틀림없고, 墨書口訣 중 특히 ‘ㄴ 3 入全可 / ㄴ 3 入人可(하야들사가)’의 記入의 下限時期는 ‘적어도 麗末鮮初’임을 파악하였다.

3) 百泉寺本에 나타나는 인쇄상의 여러 특징들은 ‘<보물 제893호> (재)아단문고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의 그것과 完全 一致함을 확인하였다.

4) 百泉寺本の 形態書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이 책의 紙質(종이두께: 0.06~0.09mm, 발촉수: 12~16촉, 발끈폭: 2.0~3.5cm)은 고려시대 寺刹本과 類似하며, 朝鮮初期 사찰본과는 確然한 差別을 보임으로써, 이 책은 늦어도 14世紀頃에 간행되었을 것임을 糾明하였다.

요컨대 百泉寺本은, 향후 국가문화재로 昇格되어야 할, 고려시대 14世紀頃에 간행된 貴重한 記錄遺産임을 파악하였다.

要語: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百泉寺 所藏本, 高麗 翻刻版, 高麗 口訣, 고려 종이의 紙質

* 청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8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9월 3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9일
서지학연구, 제75집, 145-177,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5.145]

<ABSTRACT>

This research is a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the first volume of *DaebanggwangWongagYagsojuGyeong* (*DWYG*: 大方廣圓覺略疏注經) stored at Baekcheon temple (百泉寺 所藏本)' in Sacheon, Gyeongnam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plate (板式), itself and so on of the stored at Baekcheon temple are similar to Treasure No. 891 *Daebanggwangbulhwaemgyeongso* (大方廣佛華嚴經疏) and the same as Treasure No. 893 the first volume of *DWYG*. It has characteristics of the printed edition republished by 'Song edition (宋板)'. Therefore, this book is a republished edition of the Song edition published in Goryeo period.

2) The stored at Baekcheon temple included gakpil (角筆) and Ink inscription kugyol (墨書口訣) of the Goryeo period. Gakpil must have been written in the Goryeo period, and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lower limit of inscription of 'ㄴ ㄹ ㄱ ㅅ / ㄴ ㄹ ㄱ ㅅ (하아들사가)' from Ink inscription kugyol is at least from the late Goryeo period to early Chosen period.

3) It is confirmed that printed characteristics of the stored at Baekcheon temple are in complete conformity with those of Treasure No. 893 the first volume of *DWYG* stored by 'Adan Mun-go'.

4) An investigation of the physical bibliographies of the stored at Baekcheon temple showed that the paper quality (thickness: 0.06~0.09mm, number of frame base sticks: 12~16 sticks, width of frame base sticks: 2.0~3.5cm) is similar to the temple edition of the Goryeo period, which distinguishes it from temple edition of early Chosen period. Therefore, it was recognized that this book would have been published in at least the 14th century.

Consequently, the stored at Baekcheon temple is proved to be a documentary heritage published in the 14th century Goryeo and should be promoted as a national cultural property.

Key words: The first volume of *DaebanggwangWongagYagsojuGyeong*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 Storage at Baekcheon temple(百泉寺 所藏本), Republished edition in Goryeo(高麗 翻刻版), Goryeo kugyol(高麗 口訣), Goryeo paper quality

1. 서론

周知하는 바와 같이, 고려 대각국사 義天(1055-1101)은 당시 東亞細亞에 散在하는 모든 章疏(佛典研究論文)들을 망라·수집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하고, 이 목록에 입각하여 그 所收의 章疏들을 刊行함으로써, 正藏(大藏經)에 관한 續藏(諸宗教藏)을 완비하였다. 『教藏總錄』에 편입된 章疏들은 조선 초기에 <刊經都監>에서 다시 대규모의 간행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그 후 조선에서는, 敎藏의 간행과 활용이 停止되는 듯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 佛敎講院의 교재로 채택된 『金剛經』·『圓覺經(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法華經』·『華嚴經』 등과 관련한 章疏들은 그 간행과 연구 및 활용이 꾸준히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大方廣圓覺略疏注經』¹⁾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최근 경남 사천시 소재 <百泉寺>에서 高麗本으로 추정되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²⁾이 보존되고 있음을 今年 春季 慶南文化財 調査過程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에 대한 서지적 특징 등을 糾明하여 봄으로써, 本書의 稀貴性和 그 價値 및 刊行年代 등을 導出해 보고자 한다.

2.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개요

본 章에서는 ‘百泉寺 소장 『圓覺略疏注經』 卷上(이하 ‘百泉寺本’으로 약칭함)’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그 底本이라 할 수 있는 『圓覺經』과 『圓覺經略疏』의 개요적인 측면을 考究해 보고자 한다.

百泉寺本の 첫머리인 ‘<序文> 第1面’ 및 卷首題面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冊은 그 ‘上卷’만 殘卷으로 보존되고 있다.²⁾ 이 책은 卷次와 張次의 구분 없이 序文과 本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百泉寺本은, 『원각경』의 經文 각 句節에 唐나라 圭峰宗密(780-841)이 撰述한 『圓覺經略疏』의 해당 각 부분을 按配하고, 卷頭に ‘裴休의 序文’을 첨가하여, 이른바 『經』과 『略疏』 2種의 佛典이 ‘1冊’으로 結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 『圓覺略疏注經』은, 『圓覺經』의 經文 각 句節에 唐 宗密 註解(略疏)의 해당 부분이 각각 添附되어, 『圓覺經』 經文과 『略疏』의 本文이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한 冊’의 형태로 再編成되어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다.

2) 원래 全冊은 ‘上下 2卷’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周知하는 바와 같이, 『원각경』의 經文은 모두 12章으로 구성되고 있다. 百泉寺本(版心題: “上一”)에는, 그 卷首 부분에 ‘宗密의 并序’가 무려 ‘54面’ 정도가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圓覺經』의 題目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 1行(大字)으로 인쇄되면서 이 제목에 대한 宗密의 註解가 ‘小字雙行’ 31行(6.5面)이 附加된다.



<그림 1> 「圓覺略疏注經」卷上의 제1면(裴休의 序文: 사진 左), 卷首題 및 宗密의 略疏 序文(사진 右)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圓覺經」과 「圓覺經略疏」를 구분하여 그 각각의 概要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먼저 「圓覺經」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각경」은 唐나라 長壽2年(693)에 北印度 계빈국(闍賓國) 출신 승려 佛陀多羅가 洛陽 白馬寺에서 漢譯한 경전으로,³⁾ 「大方廣圓覺經」·「圓覺修多羅了義經」·「圓覺了義經」 등 여러 이름으로 호칭되며, 「圓覺經」이라는 略稱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2) 「원각경」은 산스크리트어(梵語) 原典이 전해지지 않고, 「楞嚴經」과 「大乘起信論」에 의거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僞經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 수록된 내용이 「大乘」의 뜻(意味 및 思想)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관계로 중국과 한국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이러한

3)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第20張3面, 第1~4行의 小字雙行 記入 사항. 宗密은 본 略疏에서 「원각경」의 번역자인 「佛陀多羅」에 대하여, “「開元釋教錄」에 의하면, 沙門 佛陀多羅는 唐言으로 「覺救」(眞如法界를 깨쳐 터득하여 세상의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며, 北印度 闍賓國(지금의 카슈미르 지방) 사람이다. 東都(洛陽) 白馬寺에서 「圓覺經」 1部를 번역했는데, 번역한 年月을 기재하지 않았다. 「續古今譯經圖記」 및 「貞元目錄」도 위의 기록과 동일하다. 北都 藏海寺 道詮法師의 「疏」에서 「濕濕彌羅[카슈미르] 三藏法師 佛陀多羅는 長壽2年(693: 龍集癸巳)에 梵本을 가지고 마침내 新都(洛陽)에 도착하여 白馬寺에서 「원각경」 兩(2)卷을 번역하였는데, 총 28紙가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서 度語와 筆受와 證義와 潤文을 담당한 여러 大德들의 이름은 「別錄」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각경」은 693年 頃に 佛陀多羅에 의하여 洛陽 白馬寺에서 번역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원각경』은 唐나라 중엽 이후, 중국의 華嚴・天台・淨土 思想과 융합되어 종파에 관계없이 널리 대중화되었다.

3) 『원각경』의 구성은, 十方에 두루 가득 차 生滅함이 없는 ‘圓覺妙心’과 이 원각묘심을 깨닫기 위한 修行方法을 12개의 章으로 나누어, 文殊菩薩을 비롯한 12菩薩⁴⁾이 각 章에 한 菩薩씩 차례로 등장하여 바가바(婆伽婆: bhagavat; 世尊)와 각각 문답하는 형식으로 그 經文이 전개되고 있다.

4) 『원각경』의 내용은, 먼저 문수보살이 ‘如來가 최초로 마음을 내어 실천한 수행법(因地法行)은 무엇인가?’와 ‘末世衆生 가운데 大乘을 구하는 이들이 修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에 世尊은,

선남자야! 無上法王은 圓覺이라는 다라니(陀羅尼: dhāraṇī) 관문(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원각의 다라니 관문을 통하여 眞如와 菩提(깨달음)와 涅槃과 波羅密을 흘려보내 보살을 지도한다. 모든 如來께서 행하신 근본적인 수행은 모두 이 淸淨圓覺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觀照하는 방법에 의지한다. 바로 이런 수행으로 無明⁵⁾을 영원히 끊어야 마침내 佛道를 완성한다.⁶⁾

라고 하여, 이른바 ‘깨달음(圓覺)의 핵심’을 說하고 있다. 이 문장 바로 다음에는 ‘無明이란 무엇인가?’⁷⁾와 ‘無明 알아차리기’에 관한 대목이 연속된다.⁸⁾ 즉 無明이란, 눈병에 걸린 사람은 눈썹에 붙어있는 눈곱 등으로 인하여 ‘공중(虛空)에 그 무엇인가 꽃 같은 것(空華: 허공 꽃)이 있다’고 인식[錯覺]한다. 그러나 눈병이 나으면, 虛空에 보였던 그 空華(허공 꽃)가 원래 없었던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때의 ‘눈곱’이 바로 ‘無明’이라 할 수 있고, ‘눈병에 걸려 헛것(空華)이 보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며, 곧 깨달음(覺: 圓覺)’이라는 의미를 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圓覺經』에서는,

善男子여! ‘如來가 최초로 마음먹은 수행의 방법(因地法行)’에 의하여 圓覺을 수행하는 사람이 만일 이것(無明[예: 눈곱])이 空華(헛것)인 줄 ‘알아차리기(知)’만 하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고, 또한 몸과 마음이 生死[죽고 사는 고통]를 받는 것도 없다. 이[生死에 輪廻하는 고통]는 인위적으로

4) 『원각경』 등장 12菩薩: ① 文殊菩薩 ② 普賢菩薩 ③ 普眼菩薩 ④ 金剛藏菩薩 ⑤ 彌勒菩薩 ⑥ 淸淨慧菩薩 ⑦ 威德自在菩薩 ⑧ 辯音菩薩 ⑨ 淨諸業障菩薩 ⑩ 普覺菩薩 ⑪ 圓覺菩薩 ⑫ 賢善首菩薩.

5) 無明: 사물의 있는 그대로를 분간하지(見) 못하고, 四大(地・水・火・風)가 제 몸인 줄 잘못 아는(錯覺) 등에 얽매어 있는 정신 상태로, 愚癡를 그 내용으로 한다. 『원각경』에서는 ‘虛妄하게 生死의 온갖 煩惱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無明이라 한다(妄有輪轉生死 故名無明)’라 하고 있다.

6) 百泉寺 所藏 『大方廣圓覺略疏注經』, ‘第27張2面~第29張2面’의 經文 大字. “善男子 無上法王 有大陀羅尼門 名爲圓覺. 流出一切淸淨 眞如・菩提・涅槃 及波羅蜜 教授菩薩. 一切如來本起因地 皆依圓照淸淨覺相 永斷無明 方成佛道.”

7) 『圓覺經』에서는, 無明에 관하여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 데도, 병든 사람은 [‘있다’고] 잘못 執着한다. 잘못된 집착으로 인하여, 허공의 본래 모습을 잘못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꽃이 생긴 근원을 잘못 파악한다. 이와 같이 허망하게 生死의 온갖 煩惱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無明이라 한다.”라 하였다.

8) 百泉寺 所藏 『大方廣圓覺略疏注經』, ‘第29張2面5行~第32張3面1行’의 經文 大字. “云何無明. 善男子 一切衆生 從無始如來 … 一切衆生 於無生中 妄見生滅 是故 說名輪轉生死.”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本性이 없기 때문이다.⁹⁾¹⁰⁾

라 하여, ‘모든 중생들은, 無明이 空華인줄 알아차리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윤회에서 벗어난다]’는 要旨을 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각경』에서는 문수보살을 비롯한 12보살과의 문답을 통하여 大圓覺¹¹⁾의 妙理(圓覺妙心)와 그 觀行¹²⁾을 說함으로써, ‘末法¹³⁾時代의 중생(末世衆生)’이 ‘斷無明 顯佛性(無明을 끊고 佛性を 드러냄)’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원각경』은, 末世衆生들이 이 經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차 증진하여 드디어 佛地(부처의 경지)에 到達할 것임을 약속하는 경전이라 할 수 있다.¹⁴⁾

5) 무엇보다 『원각경』의 最大特徵은, 이 經에 등장하는 12菩薩의 모든 질문과 이에 대한 바가바(世尊)의 說法은 처음부터 끝까지 徹底하게 末世衆生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원각경』은 단 2권(兩卷)에 불과한 짧은 經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전개에서 ‘末世衆生’이라는 용어(key word)가 무려 ‘59回’나 경전 전체의 각 부분마다 골고루 按配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¹⁵⁾ 따라서 ‘원각경’은 말세중생을 위한 대승경전이라고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6) 中國華嚴宗의 第5祖이며 禪師인 圭峯宗密(780-841)¹⁶⁾은 바로 이 『원각경』에서 인간 本源에

- 9) 이 번역문은 ‘신규탁, 『원각경·현답』 (서울: 정우서적, 2013), 29-30.’을 참고하여, 그 일부는 다시 潤文한 것임.
- 10)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第32張3面 第3行 ~ 第32張4面 第4行’의 經文 大字. “善男子 如來因地修圓覺者 知是空華 即無輪轉 亦無身心 受彼生死 非作故無 本性無故.”
- 11) 圓覺: ‘부처의 圓滿한 깨달음’을 일러 圓覺이라 한다. 일체중생은 본래부터 깨달음이 있고, 眞心(참마음)은 無始 이래 지금까지 언제나 淸淨하여 밝게 비친다. 즉, ‘無明이란 본래 없고, 一切衆生이 모두 부처이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體(一定不變하는 事物의 根本)로 말하면 ‘一心’이라 하고, 因으로 말하면 ‘如來藏’이라 하며, 果(원인에 따른 결과)에 붙여 말하면 ‘圓覺’이라 한다. 이러한 圓覺에 대하여, 『圓覺經』에서는 ‘圓覺’이라 하고, 『華嚴經』에서는 ‘一心’이라 하며, 『涅槃經』에서는 ‘佛性’이라 하고, 『法華經』에서는 ‘一乘妙法’이라 하며, 『淨名經』에서는 ‘不可思議 解脫’이라 하고, 『金剛經』에서는 ‘般若’라 이름한다.
- 12) ‘圓覺妙心을 깨닫기 위한 修行方法’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 13) 末法: 釋迦牟尼 入滅(紀元前 544) 後 5백년을 正法時라 하고, 다음 1천년을 像法時, 그 후 萬年을 末法時라 한다. 즉 ‘釋尊의 입멸 후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의 가르침이 如法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역사관에 입각하여 正·像·末의 三時로 구분하고, ‘末法이 끝나면 釋尊의 가르침(敎)도 들을 수 없는 法滅의 시대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說은 『大乘同性經』, 『雜阿含經』 등에서 등장하였으며, 窺基의 『義林章』 卷6에 ‘敎說(敎)과 그 실천(行)과 그 결과(證)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시대는 正法, 敎·行만의 시대는 像法, 敎만 있는 시대는 末法이다’라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면, 西紀 11세기 이후의 시대는 末法時라 볼 수 있다.
- 14) 실제로 『원각경』 第12章인 賢善首菩薩章(流通分)에, “선남자여, 이 經은 오직 如來의 경계만을 드러내었으니, 오직 부처님·如來만이 능히 다 설할 수 있느니라. 만일 보살과 末世衆生이 이 경전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차 증진하여 마침내 부처의 경지(佛地)에 도달할 것이다(若諸菩薩 及末世衆生 依此修行 漸次增進 至於佛地).”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 15) ‘59회’라는 數字는, 『원각경』 본문에서 ‘末世衆生’이라는 용어 이외에, 末世衆生의 넓은 意味인 ‘末世一切衆生, 一切末世衆生, 末世諸衆生, 末世修行衆生, 末世修行者’ 등의 형용용어도 포함된 것임.
- 16) 宗密은 俗姓이 何氏이며, 果州 西充 사람. 中國華嚴宗의 第5祖. 陝西 鄠縣의 圭峯 草堂寺에 항상 머물렀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圭峯大師라 불렀다. 어려서 儒家를 익혔으나, 807년에 遂州 道圓禪師에게 出家하여 禪을 배웠다. 후에 淸涼澄觀(738-839)의 제자가 되어 『華嚴經』을 연구하고, 禪과 敎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宗密은 終南山 草堂寺에서 經을 암송하고 參禪하면서 法을 전하고 저술하였다. 唐나라 文宗이 宗密을 2차례나 불러들여 佛法을 연설하게 하고, ‘大德’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華嚴經行願品別行疏』, 『注華嚴法界觀門』, 『圓覺經大疏』.

대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禪을 바탕으로 會通하는 사상적 논증을 펼쳤다. 宗密은 「원각경」을 연구하면서,¹⁷⁾ 「圓覺經大疏」를 비롯한 8種 이상의 저술을 남겼다.¹⁸⁾ 宗密은 이 과정에서 華嚴學·「大乘起信論」·禪思想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해석함으로써, 당시 중국불교의 모든 중심적 사상체계가 바로 이 「원각경」을 통하여 재결합되고 재해석된다고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宗密은 「大方廣圓覺略疏注經」 등을 저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각경」은 宗密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7) 「원각경」에 대해서는 高麗 大覺國師 義天(1055-1101)도 이 經을 강의한 바 있다.¹⁹⁾ 또한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은 「원각경」을 깊이 信奉하여 ‘了義經’이라 한 후 한국에서 크게 유통되었다. 조선시대 中期 이래 「원각경」은 講院教育에서 「金剛經」·「楞嚴經」·「大乘起信論」 등과 함께 四教科의 教材로 채택되면서 韓國佛敎의 대표적인 所依經典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둘째,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 編入된 宗密의 「圓覺經略疏」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을 중국(宋)에서 간행할 때 이 板本の <序文>을 쓴 裴休²⁰⁾는, 그 序의

「孟蘭盆經疏」·「華嚴原人論」 등 2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17) 宗密은, 「원각경」은 法性·法相·破相 三宗의 經論 및 南北頓漸 兩宗의 禪門을 모두 갖추었음을 설파하였다. 또 「원각경」에 수록된 내용은 終敎·頓敎·空宗·相宗을 구비하고, 나아가 小乘敎와 圓敎까지를 겸하고 있으며, 悟修·頓漸까지도 겸비하고 있어, 禪門이나 大乘經典을 모두 뒤져도 이보다 두루 갖춘 것은 없다'고 극찬하였다.

18) 특히 宗密은 「원각경」에 대한 연구로 ①「圓覺經大疏」·②「圓覺經大疏鈔」·③「圓覺經略疏」·④「圓覺經略疏鈔」·⑤「圓覺經科文」·⑥「圓覺經道場修證儀」·⑦「圓覺經纂要」·⑧「圓覺經懸談」 등을 저술하였다.

19) 義天, “圓覺經을 講說하면서(2首),” 「大覺國師文集」 卷3, 所收. 의천은 이 강의에서 “圓覺의 本體는 ‘起信論’의 一心(한마음)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要旨을 남기면서, ‘一心의 근본’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義天의 이 강의는 宗密의 「圓覺經略疏」를 위주로 하여 講說한 것으로 보인다.

「大覺國師文集」을 통틀어 보았을 때 義天은, 「원각경」의 영향 때문인지, ‘像法時代 및 末法時代’를 자주 강조하고 있다. 즉, 義天은 ① “하물며 像法의 시대에 부처의 가르침이 쇠미해 짐을 당하여, 다시 이치에 밝은 사람의 초청을 받고도 道를 찾는데 무심하다면 필시 진리를 구하는데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義天, “宋나라에 들어가 佛法 구하기를 請하는 表文,” 「大覺國師文集」 卷5.).” ② “이렇게 함으로써 佛日이 빛을 더하고, 사악한 법의 그물의 끈을 다 풀고 像法을 거둬 일으켜서, 국가를 널리 이롭게 하고, 사바세계의 群生들과 … 비로자나불의 세계에 길이 노닐게 하소서(義天, “세자를 대신하여 敎藏 수집을 發願하는 疏,” 「大覺國師文集」 卷14.).” ③ “… 正法의 시대에도 오히려 청량한 광휘가 숨겨져, 다행이로다. 像法과 末法의 시대에 이 현묘한 교리를 만났으니 … 지금 塔과 절을 세우는(多造塔寺) [像法時代의] 말기에 처해 있고, 장차 [末法] 투쟁의 시기를 이웃하여 … 아! 祖師가 살던 시대는 像法의 塔寺를 세우는 시기에 해당되는데 … 하물며 지금의 혼탁한 세상은 末法 투쟁의 시기인데, 圓頓의 가르침을 얻어 들은 자로서 어찌 감격하지 않겠는가!(義天, “새로 참여한 學徒 繼秀에게 보이다,” 「大覺國師文集」 卷16.).” ④ “지금은 如來가 滅度(涅槃)한 뒤 後500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법이 쇠퇴하는 末世(末法時)이며, 인심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때이다. … <정심계관>에 ‘지금은 末法의 시기’로 중생의 믿음이 멀어져 恩義를 背信하고 끊으며, … 法이 惡道에 떨어질까 걱정된다’(義天, “새로 참여한 學徒 智雄에게 보이다,” 「大覺國師文集」 卷16.).” ⑤ “… 末世에는 護法의 공업만 같지 못하네 / 天台의 宗門은 하늘도 여의치 않았으니 / 만나면 모름지기 뜻을 함께 하여 유훈을 떨치세(義天, “고산에 돌아가는 憶宗대사를 송별하다,” 「大覺國師文集」 卷19.).”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義天은, 그가 처한 시대를 像法의 末期 및 末法時代의 初期로 간주하고, 佛法의 中興에 魂神을 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 裴休(797-870): 唐 시대의 居士. 字는 公美. 山西 河東 聞喜 출신. 「唐書」에는 ‘孟州 濟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음. 진사시를 거쳐 여러 관직을 거쳐 昭義·河東 등의 節度使를 역임하고, 相國의 지위에 올랐다. 문장과

첫머리에서 “무릇 중생(血氣之屬)에게는 반드시 인지작용(知)²¹⁾이 있는데, 이것은 중생의 본래적인 근원(本源)이므로 ‘心地(마음의 땅)’라고 하고, ‘보리(菩提)·法界·涅槃·清淨·眞如·佛性·總持·如來藏·密嚴國·圓覺’ 등으로 각각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은 그 모두가 ‘一心’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이 一心을] 깨달으면 輪回가 멈춘다.’고 하면서 ‘圓覺을 온전하게 갖추어 圓覺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者가 如來이다’라 하였다. ‘如來께서는 [이 『圓覺經』에서] 12보살들과 함께 비밀스레 말씀하셔 드러내시어 一切經[大藏經]의 으뜸으로 삼으셨다.’”²²⁾라고 하면서, 그 序文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序의 後尾에서 裴休는,

… 현재 經·律·論 三藏의 문헌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5千餘卷²³⁾인데, 거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 그것은 圓覺이다. … 그러므로 大藏經은 결국 모두 圓覺을說한 『經』이다. [따라서] 이 疏[宗密의 『圓覺經略疏』]는 대장경 전체에 대한 疏(注釋)인 셈이다. 5千軸으로 되어 있는 글을 단 몇 권의 疏(注釋書)로 꿰뚫으시니 참으로 간결하지 않은가!²⁴⁾

라 하여, ‘三藏의 5千餘卷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圓覺이므로, 宗密의 疏(『圓覺經略疏』 등)²⁵⁾는 大藏經 전체에 대한 疏(注釋)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疏를 極讚하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宗密의 疏’는 당시 중국불교의 여러 思想들을 包攝하여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圓覺經’의 수행법이 가장 뛰어난을 論證하고 있음²⁶⁾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百泉寺本 『圓覺略疏注經』의 卷頭에는 ‘裴休의 序文’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本書의 本文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 책의 저자라 할 수 있는 ‘宗密의 序’가 전개된다. 아래에서는 ‘宗密 序’의 핵심을 요약함으로써 『圓覺經略疏』의 개요를 가름하고자 한다.

宗密은 이 序의 첫머리에 ‘부처(佛)의 德인 常樂我淨은 一心에 근본을 둔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마음(心)에는 무엇을 ‘認知하는 작용(知)’²⁷⁾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圓覺’²⁸⁾이라고 한다.’라

글씨에 능하다는 평이 있었으며, 晩年에는 佛教에 歸依하여 圭峰宗密과 方外의 벗이 되었고, 黃檗希運을 본인의 任地에 있는 龍興寺와 開元寺에 초빙하여 朝夕으로 문안하면서 禪法을 參究하고 師事하였다.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序文 등을 쓰고, 黃檗希運의 法語集인 『傳心法要』 등을 편찬하였다.

21) 衆生은 마음의 반연에 의해서 ‘인지작용[知: cognition]’을 한다(신규탁, 『원각경·현답』, 30.)고 한다.

22) 裴休,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序,” 『大方廣圓覺略疏注經』(百泉寺本), 第1張1面 第3行 ~ 第2張3面 第5行. 參照要.

23) 『開元釋教錄 略出』에 제시된 ‘5,048卷’을 指稱하며, 이는 즉 ‘大藏經’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4) 裴休,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序,” 『大方廣圓覺略疏注經』(百泉寺本), 第4張2面 第3行 ~ 第4張4面 第1行. “今夫經律論三藏之文 傳于中國者 五千餘卷 其所詮者 何也. … 圓覺而已. … 然則代將 皆圓覺之經 此疏 乃大藏之疏也. 羅五千軸之文 而以數卷之疏 通之 豈不至簡哉.”

25) 『圓覺經大疏』를 비롯한 宗密의 『圓覺經』에 대한 연구 저서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6) 신규탁, 『규봉종밀과 법성교학』 (서울: 올리브그린, 2013), 244-246. 참고.

27) 宗密은 『原人論』에서, 위 본문의 ‘知’에 대하여 “일체 중생은 모두 ‘본래부터 깨달은 참 마음[本覺眞心]’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하고, (거울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항상 있는 眞[常知]이다”라 하였다. 이 말은 人間 本然의 마음(心)과 모든 현상을 緣起論으로 해석하지 않고 性起論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宗密은 이 本覺眞心を ‘참 自我’로 본다. 本覺眞心은 인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空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므로 恒常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대상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하고,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허망한 일들은 圓覺妙心²⁹⁾에서 생겨난 것이다.’ [衆生의] 마음(心)은 본래 부처님과 같으나(心本是佛) 妄念이 일어나 [生死의 苦海에] 떠돌기를 들쭉날쭉 한다. 망령된 찌꺼기를 단박에 싹 없애면 번뇌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³⁰⁾

圭峰宗密은 27세에 사천성 遂州에서 道圓禪師에게 出家하였다.³¹⁾ 그는 沙彌時節(27~29세 사이)에 성도부의 府使인 任灌의 집에 초청(供養請僧) 받아 갔는데, 이 때 「원각경」을 처음 보았다고 한다.³²⁾ 宗密은 「圓覺經略疏」의 序에서,

나 宗密은 … ‘다행히도 [사천성 遂州에 있는] 涪江에서 바늘과 겨자가 서로 만나는 듯한 행운을 얻었다.’³³⁾ 禪으로는 南宗(六祖惠能의 禪宗)을 만나고, 敎로는 이 「圓覺經」을 만났다. 道圓禪師의 一言之下에 ‘마음의 땅’이 열리고, 이 「원각경」 한 권의 책에서 ‘이치의 하늘’은 찬란히 빛났다. 늘 道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道가 아니고, 모든 존재는 無常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이 마음으로 인하여 마침내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되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 … 내가 보건대, 대저 문장이 풍부하고 뜻이 넓기로는 참으로 「화엄경」에 양보해야 하겠지만, 본체를 가리켜 상대의 근기에 들어맞게 하는 것으로는 「원각경」에 겨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 論書를 자세하게 참고하고 百家의 서적을 반복 연구하여, 지혜를 날카롭게 다듬어 마침내 「원각경」을 풀어 해석하였다.³⁴⁾

작용성을 갖고 있다. 宗密은 이것의 성질을 ‘恒常하여 (무엇인가를) 아는 작용[常知]’으로 규정하였다. 宗密이 말하는 ‘本覺眞心’의 ‘本覺’은 「大乘起信論」에 나오는 개념으로 ‘始覺(佛法을 듣고 無明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일)’에 상대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것은 ‘본래부터 있는 깨달음’을 뜻한다(신규탁, 「규봉종밀과 범성교학」, 227-228. 참고). 衆生에게는 다만 이것이 無明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如來藏’이라고도 한다.

28) 圓覺: ‘부처님의 圓滿한 깨달음’을 일러 圓覺이라 한다. 일체의 有情(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衆生)이 모두 본래부터 깨달음이 있고 眞心이 있어서, 시작이 없는 까마득한 옛날부터(無始以來) 지금까지 언제나 淸淨하여 맑게 비치고, 잘 알아 體로 말하면 ‘一心’이라 하고, 因으로 말하면 ‘如來藏’이라 하고, 果에 붙여 말하면 ‘圓覺’이라 한다.

29) 圓覺妙心: 圭峰宗密은, 일체의 相을 떠났기 때문에 ‘圓’이요, 空寂하지 않기 때문에 ‘覺’이요, 번뇌와 관계를 맺더라도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妙’요, 그 속에 참되고 신기로운 이해작용이 있기 때문에 ‘心’이라 했다. 「大乘起信論」에서는 이를 ‘本覺’ 또는 ‘本覺妙心’이라 표기하였는데, 내용은 동일하다(신규탁, 「원각경·현답」, 39.). 圭峰宗密이 즐겨 쓰는 개념인 ‘本覺眞心’은 「원각경」에서 나오는 ‘圓覺妙心’이다. 즉 ‘圓覺妙心’은 ‘本覺眞心’의 다른 표현이다(신규탁, 「규봉종밀과 범성교학」, 231-232.)라고 하고 있다.

30) 宗密,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 并序,” 「大方廣圓覺略疏注經」(百泉寺本), 第5張2面 第4行~第1張1面 第2行. 參照要.

31) 道圓禪師는 荷澤神會의 嫡孫인 南印스님의 제자이다. 하택신회(684-758)는 六祖惠能의 제자로, 732년 하남성 滑臺 大雲寺에서 無遮大會를 열어, 自身은 惠能 直系의 제자이며 菩提達摩의 正系임을 주장하고, 神秀系의 北宗禪(漸悟)을 비판하였다. 神會는 일생을 南宗禪(惠能)의 顯彰運動에 盡力하였다. 圭峰宗密은 「禪門師資承襲圖」에서, ‘六祖惠能 → 神會 → 법여 → 南印 → 宗密’(荷澤宗)의 師資相承의 법계를 설하고 있다.

32) 裴休,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序,” 「大方廣圓覺略疏注經」(百泉寺本), 第2張4面 第1行~第4行. “圭峰禪師 得法於荷澤嫡孫 南印上足道圓和尚 一日 隋衆僧 齋于州民任灌家 居下位 以次受經 遇圓覺了義.”

33) 이는 ‘宗密이 27세에 道圓禪師의 門下에 出家하고, 이듬해에 구족계를 받았음(신규탁, 「원각경·현답」, 223.)’을 일컫는 말이다.

34) 宗密,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 并序,” 「大方廣圓覺略疏注經」(百泉寺本), 第7張4面 第5行~第8張2面 第3行. “幸於涪上 針芥相投. 禪遇南宗 敎逢斯典 一言之下 心地開通 一軸之中 義天浪耀. 頃以道非常道 諸行無常. 今知心是佛心 定當作佛. / … 觀夫文義富博 誠讓雜華 指體投機 無偕圓覺 故參詳諸論 反復百家 以利其器 方爲疏解.”

라 하였다. 여기에서 宗密 자신은 바로 ‘이 『원각경』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隱喻하여 내비치고, 『원각경』을 깊이 연구하여 관련 여러 章疏들을 저술한 배경을 述懷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宗密은 『원각경』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저술을 많이 남겼는데, 『圓覺經大疏』는 그의 나이 44세(823년)에 완성된 것이다. 『圓覺經略疏』는, 宗密이 『圓覺經大疏』를 저술한 이후에, 이 『大疏』를 簡潔하게 要約하여 간추린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3.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기존 판본

百泉寺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은 그 板式이 ‘上下單邊 左右雙邊’으로 宋版本의 典型을 띠고 있다.³⁶⁾ 따라서 百泉寺本은 고려에 수입된 宋版本을 翻刻하여 고려에서 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각경』이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신라의 승려 惠居(899-944)의 傳記에 이 경전을 강의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어, 신라시대에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圓覺經』에 대한 研究書인 『원각경』 章疏와 관련하여, 圭峰宗密은 무려 ‘9種’³⁷⁾이나 되는 秀作을 남겼음을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 파악할 수 있다. 高麗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宗密 이외에도, ‘淨源·賢志·大軀·德素·法圓’ 등의 ‘略本修證儀’·‘疏’·‘解’·‘玄義’ 등의 여러 章疏들이 收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위와 같은 여러 기록 등을 통하여, 『圓覺略疏注經』은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판본이 간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現傳하는 『圓覺略疏注經』은 총 7種이며, 이 板本들은 宋代에 전래된 木版本을 覆刻한 것과, 朝鮮 初期 <刊經都監>에서 板刻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전하는 『圓覺略疏注經』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35) 신규탁, 『규봉종밀과 법성교학』, 244-246, 294-295. 참고.

36) 宋版本 板式의 最大 특징은 ‘上下單邊 左右雙邊’이라는 점이다. 이는 台北 <國立古宮博物院>에서 발간한 ‘大觀-宋版圖書特展-’ (台北: 國立古宮博物院, 中華民國95.)에 수록된 ‘文選’(宋 天聖(1023-1031)刊本), ‘爾雅’(南宋國子監本), ‘漢書’(南宋 紹興(1140-1160)刊本) 등의 寫眞 圖版에서 克明하게 顯示되고 있다.

37)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는 ‘宗密의 『圓覺經』 章疏’로, “圓覺經 / ①大疏6卷 或3卷 / ②大疏科2卷 或1卷 / ③大鈔26卷 或13卷 / ④略疏4卷 或2卷 / ⑤略疏科2卷 / ⑥略鈔12卷 或6卷 / ⑦道場修證儀18卷 / ⑧禮懺略本4卷 / ⑨道場六時禮1卷 … (빈 칸) 已上 宗密述(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大定新修大藏經』 第55卷 目錄部全 (東京: 大定新修大藏經刊行會, 昭和3年(1928)), 1169.)”가 記錄되어 있다.

38)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大定新修大藏經』 第55卷 目錄部全, 1169-1170.

<표 1> 現傳 「圓覺略疏注經」의 서지 사항³⁹⁾

간행 시기	판본	장정	권차	형태사항	소장처	비고
고려 시대	목판본	包背裝 (近來 '線裝'으로 덧裝幀)	卷上 [版心題: '上一']	全葉20行13字 (1面: 5行 13字), 上下單邊 左右雙邊, 有界, 크기 34.0×18.9cm	백천사	
고려 시대	목판본	折帖裝	卷上 [版心題: '上一']	(1面)5行 13字, 上下單邊, 有界, 크기 29.0×17.0cm	(재)아단문고 (舊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3호 ⁴⁰⁾
	목판본	包背裝	卷上之二	(1面)5行 13字, 上下單邊, 有界, 크기 34.3×19.7cm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938호
	목판본	折帖裝	卷下	(1面)5行 13字, 上下單邊, 有界, 크기 34.2×19.0cm	관문사	보물 제963호
	목판본	折帖裝	卷上之二	(1面)5行 13字, 上下單邊, 有界, 크기 34.0×19.8cm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보물 제1016호
	목판본	線裝	卷上	(1面)5行 13字, 上下單邊, 有界, 크기 34.3×19.7cm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080호
조선 시대	목판본	胡蝶裝	卷下之二	(1張)12~13行 13字, 上下單邊, 有界, 크기 34.0×19.8cm	(호림박물관) 성보문화재단	보물 제1171호

39) 이 표에서는 비교의 편의상 본 연구대상 자료인 百泉寺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簡略書誌를 함께 제시하였다. 百泉寺本은 卷首에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이라는 書名이 제시되고 있으며, 版心에 「序上一」, 「上一」 등이 있는 점, 그 原書가 卷子本 혹은 折帖本을 염두에 두고 板刻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단은 「(재)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893호>」와 同一한 板本으로 추정된다.

40) ①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2018.8.1. 검색; 以下 同一) 보물 제893호. 해제: 원각경에 대한 당나라 宗密의 註釋本을 송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복각한 목판에서 조선 초기에 다시 찍어낸 불서. 목판본 1권 1책. 강태영 소장. 보물 제893호. / 원각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93년 북인도의 승려 佛陀多羅의 한역본이나, 이것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어 중국에서 만든 偽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 경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 제1 文殊菩薩章은 이 경의 안목이 되는 부분으로 如來因行의 근본과 果相을 설하고 있다. 즉, 因地에 원각을 닦는 자가 모든 현실이 허공의 꽃이요 몽환인 줄을 알면 곧 생사윤회가 없어질 뿐 아니라 생사가 곧 열반이 되고 윤회가 곧 해탈이 된다는 것이다. 제2 普賢菩薩章 이하는 이러한 원각을 닦고 증득하는 데 필요한 觀行을 설하고 있다. 보현보살장에서는 중생들이 원각의 淸淨境界를 듣고 수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3 普眼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住持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4 金剛藏菩薩章에서는 ① 만일 중생이 본래 성불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다시 일체의 無明을 설하였는가, ② 만일 무명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인연으로 본래가 성불한 것이라고 설하였는가, ③ 만일 본래 불도를 이루고 다시 무명을 일으켰다면 여래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킬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 제5 彌勒菩薩章에서는 윤회를 끊는 방법, 제6 淸淨慧菩薩章에서는 聲聞性·緣覺性·菩薩性·如來性·外道性 등 五性の 所證差別에 대하여 설하였다. 제7 威德自在菩薩章에서는 중생의 세 가지 根性에 따른 수행방법을 설하고 있다.

1) ‘(재)아단문고(보물 제893호, 卷上)’와 ‘삼성미술관 리움(보물 제938호,⁴¹⁾ 卷上之二)’에 각각

제8 辯音菩薩章에서는 圓覺門에 의하여 修習하는 길에 대해 설하였다. 제9 淨諸業障菩薩章에서는 末世衆生을 위한 將來眼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10 普覺菩薩章에서는 수행하는 자가 닦아야 할 法과 行, 제거해야 할 병과 발심하는 방법, 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법 등을 설하였다. 제11 圓覺境界를 닦기 위하여 安居하는 방법을 설하였다. 끝으로 제12 賢善首菩薩章에서는 이 경의 이름과 信受奉行하는 방법, 이 경을 受持하는 공덕과 이익 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각경은 우리나라 고려의 知訥이 깊이 신봉하여 了義經이라 한 뒤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 초기 涵虛和尚이 『圓覺經疏』 3권을 짓고 有一과 義瞻이 각각 <私記>를 지은 뒤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이 경이 널리 독송, 연구되고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이 경이 훌륭한 이론과 실전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 이 책은 본래 중국의 당나라 때 종밀선사가 간략하게 주해를 가한 것을 송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고려에서 수입하여 재차 복각한 것이다. 고려에서 판각된 목판본에서 인출된 판본의 문화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보물 제893호(卷上)·보물 제938호(卷上之二). 전체적으로 <大方廣佛華嚴經疏>와 板式, 字體 등이 비슷하고 飜刻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宋板本 <대방광원각소주경>을 입수하여 새겨낸 고려시대의 판본이다. 卷下가 결락되었으나, 송판본을 번각한 고려시대의 목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보물 제893호는 강태영, 보물 제938호는 호암미술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 (2) 보물 제963호(卷下)·보물 제1016호(卷上之二)·보물 제1080호(卷上). 보물 제893호·보물 제938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송판본을 번각한 敎藏系列의 판본으로 고려 말기에 인출한 것이다. 보물 제963호는 李京姬에서 <관문사>로 소유가 변경되었으며, 보물 제1016호는 金敏榮, 보물 제1080호는 宋成文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각각 소장하고 있다. / (3) 보물 제1171호(卷下之二). 이미 지정된 보물 제893호(卷上一)·보물 제938호(卷上二)·보물 제958호(卷上二)·보물 제963호(卷下一)·보물 제1016호(卷上二)·보물 제1080호(卷上一)와 비교하여 보면, 板首題 표시가 이미 지정된 것은 ‘上二’이며, 한 장의 행수가 20행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方四 二’와 한 장의 행수가 25행으로 되어 있는 점 등 판식이 다르다. 표지가 호접장(胡蝶裝) 형태로 제본되어 있다. / 그러나 이상의 판본은 전체적인 체제가 교장의 편집체제로 송판 복각판임이 틀림없고, 판각시기를 고려 말 이전으로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출시기는 표지와 장정 등으로 보아 넓게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출된 후쇄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 중에 ‘강태영 소장본(보물 제893호)’은 ‘卷上一’에 해당되는 목판본이다. 장정의 형태는 이와 동일한 다른 판본과는 달리 線裝으로 개장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0cm×17.5cm이다. 그래서 표지는 근래 만든 종이에 실로 꿰맨 선장으로 제책되어 있으며, 별도의 표제도 쓰여 있지 않다. 표지를 넘겨 권수에는 裏休가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서문에 이어 바로 권두제가 나타난다. 권두제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의 저자표시에는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로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종밀에 의한 주해본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문은 접힌 반엽을 기준으로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크기는 22.5cm×14.0cm이다. 반엽은 5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행의 경문은 12자씩으로 배자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일반적으로 접장의 형태로 제책되어 중앙의 판심부는 없으며, 판수제는 위에 ‘上一’이란 권수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장수는 그 아래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은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본래의 표지가 아닌 듯 하다. 자체는 송판계통에서 흔히 보이는 구양순체의 특징이 여실히 보이며, 인쇄 상태는 마치 목활자로 인출된 것을 방불케 할 정도로 먹색이 균정하다. 이는 ‘보물 제891호’로 지정된 <大方廣佛華嚴經疏>와 판식과 자체 등이 비슷하고, 송판 飜刻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문의 경문 사이에 전체에 걸쳐 세필로 구결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강태영본은 고려시대에 宋板本을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화엄경소와 더불어 원각경의 注疏本 및 宋板系統의 敎藏의 板式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물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②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보물 제893호, 형태서지: 1.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 四周單邊, 半郭 22.6cm×14.1cm, 有界, 半葉 5行 12字 ; 29.0cm×17.5cm. 시대: 고려 시대 추정.

- 41) ①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38호, 해제: <대방광원각소주경>은 觀心(자기 마음의 본 성품을 똑똑히 보는 것) 수행을 위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要法을 설한 <大方廣圓覺經>을 唐시대 佛陀多羅가 번역한 것에 宗密이 간략하게 주해한 것이다. / 義天의 <新編宗教藏總錄>에 ‘略疏四卷 或 二卷’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상·하의 2권이 각각 1·2로 분할된 ‘2권 4책’ 중 ‘卷上之二’가 전래된 것이다. / 줄여서 ‘圓覺經’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승려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어 불교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장되어 있는 2種은 ‘2卷 2冊’으로 구성된 「圓覺略疏注經」이다. 이 책은 「大方廣佛華嚴經疏」와 板式 및 字體 등이 類似하고, 宋板本을 飜刻한 특징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2種은 ‘宋板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을 입수하여 고려에서 다시 새겨낸, 이른바 ‘高麗時代의 木版本’으로 規定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보물 제938호>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에서는, 「원각경」經文의 제2章인 ‘普賢菩薩’章부터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자료인 ‘백천사 소장 「圓覺略疏注經」, 卷上(上一)’의 경우, 「원각경」經文 第1章에 관한 注解가 모두 끝났음이 확인된다. 이들 두 사항에 입각하면, 宋板本 「圓覺略疏注經」의 ‘上卷’은 그 版心題에서 ‘上一’과 ‘上二’로 구분되면서, 동시에 그 形態的인 卷數도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문사(보물 제963호,⁴²⁾ 卷下)’,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보물 제1016호,⁴³⁾ 卷上之二)’, ‘국립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知訥이 깊이 신봉한 뒤로 크게 유행하였다. / 원래는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1판에 20行씩 새긴 것에서, 10行씩 찍어 책으로 만들었다. 송나라에서 보낸 목판으로 찍어낸 『大方廣佛華嚴經疏』와 板式 字體 등이 비슷하여 송나라 판본을 입수하여 이를 보고 고려 때에 옮겨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보물 제938호, 형태서지: 1.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之二, - 四周單邊, 全郭 22.2cm×52.4cm, 有界, 全葉 20행 13字, 註雙行; 34.3cm× 19.0cm. 시대: 麗末鮮初.

- 42) ① <보물 제963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해제: 이 책은 원각경에 대한 당나라 宗密의 註釋本을 송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복각한 목판에서 조선 초기에 다시 찍어낸 불서. 목판본 1권 1책. 구인사 소장. 보물 제963호. ... 그러나 이상의 판본은 전체적인 체제가 교장의 편집체제로 송판 복각판으로 확인되고, 판각시기를 고려후기로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출시기는 표지와 장정 등으로 보아 넓게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출된 후쇄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 [舊]구인사 소장본은 ‘卷下一’에 해당되는 목판본이다. 장정의 형태는 이와 동일한 다른 판본과는 달리 선장(線裝)으로 개장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0cm×17.5cm이다. 그리고 표지는 본래 인출시에 만든 원상으로 5침으로 꿰맨 선장으로 제책되어 있으며, 표제도 목판으로 찍은 제침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지를 넘겨 권하의 권수제가 나타난다. 권수제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의 저자표시에는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로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이 중월에 의한 주해본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보물 제963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형태서지: 1.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下, - 四周單邊, 全郭 23.0cm×56.0cm, 有界, 全葉 10行 13字, 註雙行; 34.2cm×19.0cm. 시대: 麗末鮮初.

- 43) ① <보물 제1016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해제: 원각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서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사교과(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93년 북인도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의 한역본이나, 이것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어 중국에서 만든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 경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 / 이 중에 구인사 소장본은 ‘卷上之二’에 해당되는 목판본이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문은 전엽을 기준으로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크기는 22.2cm×26.8cm이다. 전체 10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항의 경문은 13자씩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권자나 접장의 형태로 중앙의 판심부는 없으며, 판수제는 위에 ‘上二’라는 권수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장수는 그 아래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은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본래의 표지가 아닌 듯하다. 표지에는 서명은 쓰여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 책의 크기는 34.0cm×19.8cm이다. 자체는 마치 목활자로 인출된 것을 방불케 하는 보물 제891호로 지정된 <大方廣佛華嚴經疏>와 板式과 자체 등이 비슷하고, 飜刻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문의 경문에는 세필로 구결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구인사본은 고려시대에 宋板本 <대방광원각약소주경>을 입수하여 새겨낸 목판에서 후쇄한 판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원각경의 주소본 및 송판계통의 교장의 판식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물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② <보물 제1016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형태서지: 1.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之二, - 四周單邊, 全郭 22.0cm×52.4cm, 有界, 全葉 20行 13字, 註雙行; 34.0cm×19.8cm. 시대: 고려후기.

중앙박물관(보물 제1080호,⁴⁴⁾ 卷上)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 3種은, '3卷 3冊'으로 구성된 「圓覺略疏注經」이다. 이들 3種은 '(재)아단문고'와 '삼성미술관 리움(보물 제938호)⁴⁵⁾에 소장된 판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宋板本을 번각한 續藏系列의 판본으로, 高麗 末期에서 朝鮮 初期에 印出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 제963호>인 '구인사 소장 「圓覺略疏注經」 卷下'는 「원각경」經文의 第5章인 「彌勒菩薩」章으로 시작된다. 이 板本도 '上下單邊, 左右單邊'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리움 소장 「圓覺略疏注經」 上二'의 경우, 그 '左右雙邊'이라는 宋板本이라는 특징이 사라지고 '左右單邊'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⁴⁶⁾ <보물 제963호>인 '구인사 소장 「圓覺略疏注經」 卷下'에서도 그 版式에서 '上下單邊, 左右單邊'으로 나타남으로써, 宋板本을 저본으로 한 '고려 번각판'이라는 특징이 보인다.

3)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원각약소주경」(보물 제1171호,⁴⁷⁾ 卷下之二)은 '1권 1책'이며, 위의 6種

44) ① <보물 제1080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해제: 대방광원각소주경은 觀心(자기 마음의 본 성품을 똑똑히 보는 것) 수행을 위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要法을 설한 《大方廣圓覺經》을 唐시대 佛陀多羅가 번역한 것에 宗密이 간략하게 주해한 것이다. / 義天의 《新編宗教藏總錄》에 '略疏四卷或二卷'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상·하의 2권이 각각 1·2로 분할된 2권 4책 중 권 상지1이 전래된 것이다. / 版式은 사주단변·有界이고 無版心の 한 판 크기 22.2cm×54.7cm에 20행 13자 註雙行을 새긴 두루마리 형식의 각판에서 찍어 반 장에 5행이 되도록 접어 綴하여 線裝으로 한 것이다. 冊紙는 오손되고 卷首 앞 상부의 파손으로 補接하고, 표지를 새로 개장하였다. 책장머리의 여백에 '上-'이 표시되어 있어 권 상지1임을 알 수 있으며, '보물 제893호'로 지정된 강태영 소장의 卷上之1과 複本이 된다. / 이 책도 다른 판본과 같이 판심, 글자체, 판각기법 등으로 보아 고려 14세기에 宋板本系를 醵刻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정된 권 상지2처럼 일찍이 스님의 手澤本(오래 몸에 지니 손때가 묻은 책)이 되었던 듯 책지에 오손과 파손이 생겨 배접하였지만 인쇄만은 선명하고 깨끗하다. 이 두 책의 後印 시기는 여말선초로 추정된다. / 같은 판본이 지정된 것은 '보물 제893호(권 상지1)', '보물 제938호(권 상지2)', '보물 제959호(권 상지2)', '보물 제963호(권 하지1)', '보물 제1016호(권 상지2)', '보물 제1171호(권 하지2)' 등이 있다.

② <보물 제1080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형태서지: 1. 大方廣圓覺略疏註經 卷上. - 四周單邊, 全郭 22.6cm×52.8cm, 有界, 全葉 20行 12字, 註雙行; 34.3cm×19.7cm. 시대: 고려말기~조선초기.

45) 이 책은 「원각경」經文의 제2章인 「普賢菩薩」章부터 시작된다.

46) 宋板本은 '1張4面'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때 '左右雙邊'이라 함은 '第1張의 右邊, 第2張의 左邊'이 雙邊으로 나타나야 함이 그 典型이라 할 수 있다. '리움 소장본'에서 다만 그 左右의 邊 중에서 '第1張3面의 右側' 및 '第2張2面의 左側' 등의 세로邊은, 界線(有界) 위치에 붓(墨)으로 굵은 線을 그려 넣었기 때문에, 그 일부는 희미하게나마 雙邊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界線 위에 굵은 붓(墨)으로 이른바 '세로邊'을 木板 印刷 이후에 붓(墨)으로 그려 넣어서 완성된 것임이 파악된다.

47) ① <보물 제1171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해제: 대방광원각약소주경은 觀心修行(자기 마음의 本性품을 똑똑히 보고자 하는 수행)을 위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要法을 말한 대방광원각경을 唐의 佛陀多羅가 번역한 것에 宗密이 간략하게 註解한 것이다. /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略疏 4권혹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상·하 2권이 각각 1·2로 분할된 2권 4책 중 권 하지2가 전래된 것이다. / 版式은 四周單邊·有界·無版心の 크기 22.8cm×56.0cm에 25행 13자 註雙行을 새긴 권축장 형식의 각판에서 한 장에 13행과 12행으로 나누어 찍어 본문을 反摺하여 글자가 없는 뒷면 책지 등쪽에 풀을 붙여 하나의 표지로 되어 싸서 호접장(胡蝶裝)으로 만든 것이다. / 版題는 '方四二'와 같이 경 이름의 한자 약자에 이어 冊·張次의 숫자를 간략하게 표시하고 있다. / 표지는 짙은 紺色紙이며, 書口 위쪽에 銀泥의 子母雙線 장방형 안에 '大方廣圓覺經 卷下之二'를 은니로 필서하고 있다. 이 책은 판식·글자체·판각 기법으로 보아 宋板本系를 醵刻한 것이며, 그 시기는 고려 14세기경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각판에서 찍어낸 것은 여말선초로 여겨진다. / 이 판본은 드물게

과는 板式 및 裝幀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版心과 卷首題가 ‘上二’이나, 이 책은 ‘方四二’이다. 裝幀은 胡蝶裝이다. 板本の 體裁가 續藏을 따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高麗末에 板刻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印出時期는, 그 表紙 및 胡蝶裝 등으로 보아, 朝鮮 初期에 印出된 高麗版의 後刷로 추정할 수 있다.

4.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角筆 및 口訣 사항

百泉寺本 ‘圓覺略疏注經」卷上’은, 高麗 14세기경에 宋板을 復刻하여 간행한 ‘원각경」註解書의 殘卷으로 推定된다. 왜냐하면, 책의 글씨체(書體)와 版心 및 板刻技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14世紀頃의 宋板本 계열을 翻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百泉寺本의 인쇄상태는 鮮明하고 깨끗하며, 包背裝 위에 다시 線裝으로 改裝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그림 2> ·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百泉寺本에는 高麗時代로 추정되는 角筆⁴⁸⁾과 音讀口訣이 記入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注目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第9張1面 第2行’까지는 ‘한글口訣’도 함께 記入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⁴⁹⁾

위와 같이, ‘백천사 소장 『圓覺略疏注經』’은 高麗時代의 角筆과 音讀口訣 및 朝鮮時代의 한글구결도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韓國文字論이나 國語史的인 측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看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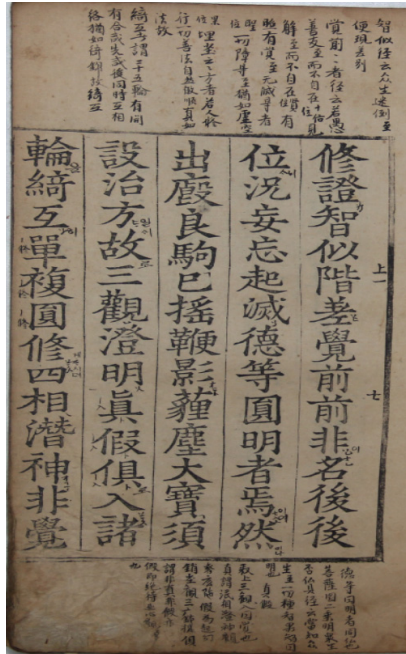
百泉寺本에 사용된 角筆의 종류는, 기존의 학계에서 공개된 고려시대 각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다양하다. 이 책에 記入된 角筆 符號 가운데 ‘원문 내용적 의미를 가진 것’은, 아래의 <그림 4> ~ <그림 8>과 같이, 크게 ‘斜線, 直線(가로선, 세로선), 체크, 單點, 雙點’ 등의 5가지가 사용되었다.

보이는 호집장이고, 권 하지2가 마지막으로 발굴되어 원각경 약소의 완질이 갖추어진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 그간 발굴되어 지정된 卷次는 ‘보물 제893호(권 상지1)’, ‘보물 제938·959·1016호(권 상지2)’, ‘보물 제963호’에 ‘권 하지1’, 그리고 이 판본은 ‘권 하지2’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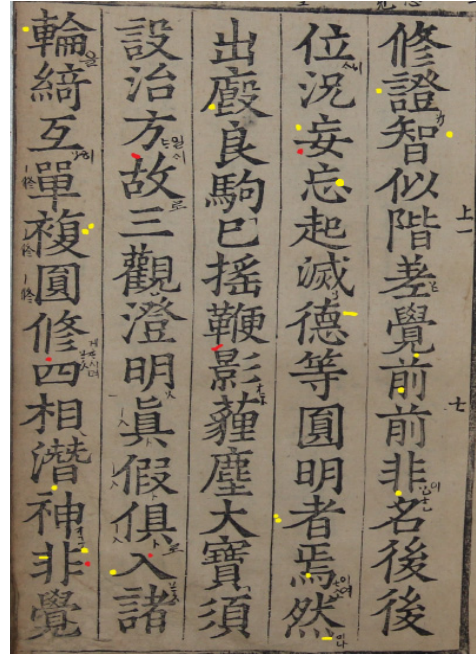
② <보물 제1171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형태서지: 1.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下之二. - 四周單邊, 全郭 23.0cm×56.0cm, 有界, 全葉 25行 13字, 註雙行; 30.0cm×16.0cm. 시대: 조선초기.

48) 角筆: 佛經 등에 口訣을 表示하는 데 있어서, 經典의 말씀(句節) 주변을 더럽히지 않고 구결을 表記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나무나 象牙 등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 角筆을 사용하여, 각 구결 주변의 餘白에 角筆로 종이에 눌러서 표기한 결과의 符號. 이렇게 표기된 經典은, 얼핏 보면 角筆符號가 바로 눈에 띄지 않지만, 책을 傾斜진 각도로 보거나 照明을 활용하면 角筆口訣의 부호들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의 佛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古代國語의 研究 및 佛典의 解釋方法을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有用한 부호이다.

49) 이 책은 아마도, 이 책이 고려시대에 간행되어 어느 寺刹에서 角筆을 달아가며 읽혀지다가, 後代에는 墨書口訣이 다시 記入되고, 朝鮮時代 初期에는 여기에 다시 한글 구결이 기입되는 등 14世紀와 15世紀 등 여러 시대를 거쳐 오면서 愛讀된 불전으로 여겨진다.



<그림 2> 百泉寺本 第7張1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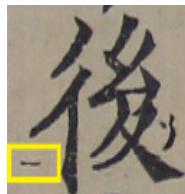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2>의 '2인 추정 角筆' 再現



<그림 4> 사선



<그림 5> 세로선



<그림 6> 가로선



<그림 7>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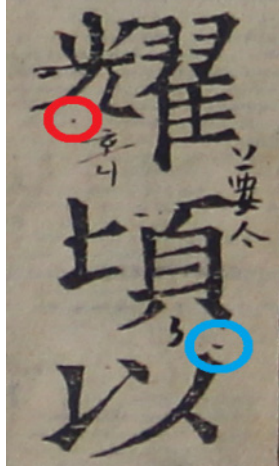
<그림 8> 單點/雙點

百泉寺本에 나타나는 角筆과 口訣들을 분석해 볼 때, 음독구결들의 결합형태는 늦어도 ‘麗末鮮初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 이 책의 刊行時期를 糾明하는 데에 주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百泉寺本の 角筆 및 口訣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⁵⁰⁾

이 책에 記入되어 있는 구결은, 아래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角筆’과 ‘墨書符號’, 그리고 ‘音讀口訣’ 및 ‘한글구결’의 4가지 형태가 한꺼번에 記入되어 있는 특징도 보인다. 아래 <그림 10>의 左側 上部의 동그라미(圓) 속은 ‘角筆 符號’이고, 右側 下部의 동그라미(圓) 속은 ‘墨書 符號’이다.

50) 이하의 ‘高麗時代의 口訣에 관한 특징’과 관련한 논문은, 主的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남경란 교수’의 철저한 諮問에 의하여 作成되었음을 여기에 밝혀 둔다. 남 교수께 깊은 謝意를 표한다.



<그림 11> 2張1面3行

이 책에서의 口訣은, 위의 <그림 9>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독구절과 한글구절이 함께 記入되어 있는데, ‘第9張1面 第2行’까지 나타나는 음독구절의 경우에는 <그림 11>에 정보처리된 바와 같이, ‘右側 동그라미(圓)’와 ‘左側 동그라미’ 속에서 보는 구절과 같이, 그 ‘구절 기입자’가 2명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第9張1面 2行’까지만 나타나는 한글구결은, 1465年(世祖 11)에 <刊經都監>에서 刊行한 『圓覺經諺解』의 한글구결과 완전히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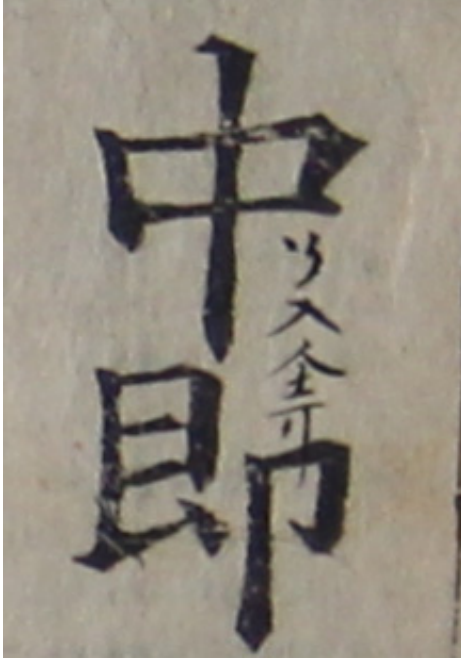
「원각경」原文과 「圓覺經諺解」의 원문을 비교해 볼 때, 이 자료에 나타나는 角筆과 墨書 및 口訣의 기입 순서는, ‘각필 → 목서(1) → 목서(2) 및 음독구결 → 한글구결’의 順으로 추정된다.⁵¹⁾

음독구결을 분석해 본 결과 ‘ㄴㅅ 入 全可/ㄴㅅ 入 人可(하야들사가), ㄷㅅ 1(것다), ㄴㅅ 1 ㅅ(하산디), ㄴㅅ 入 ㅅㅂ(하야더시니), ㄴㅅ ㅅㅂ ㅂ(홀시), ㅅㅂ 入 ㅅ(쓰녀), ㄴㅅ ㅅㅂ ㅂ(홀술), ㄴㅅ ㅅㅂ ㅅ(홀여기), ㄴ 1 ㅅㅂ 1(혼딘), ㅅㅂ ㅅㅂ 可ㅅ(라홀가하야), ㄴㅅ ㅅㅂ ㅅ(하요디), ㄴㅅ 1(하두다), ㅅㅂ ㅅㅂ ㄷㅅ 1(라뎃것다)’ 등의 麗末鮮初의 음독구결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결합유형들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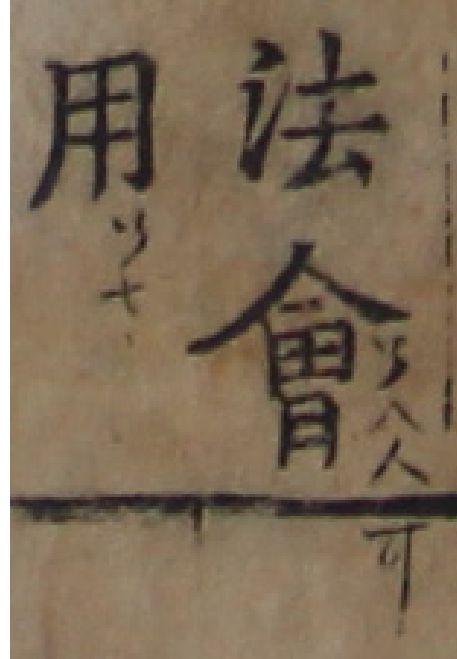
특히 이 가운데에서 아래의 <그림 12>와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ㄴ ㅅ 入金可 / ㄴ ㅅ 入人可(헝야돌사가)’의 出現은 이 자료의 口訣 記入時期를 늦어도 ‘麗末鮮初’로 糾明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⁵²⁾

51) 墨書의 경우는, 墨書點을 기입한 사람이 적어도 2명일 가능성이 크다.

52) 이와 같은 유형들은, 모두 ‘第9張1面 第3行’에서부터 ‘第36張’까지의 口訣은, 이들 口訣의 記入은 單獨으로 記入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표기들이다.



<그림 12> 第25張2面 第2行1·2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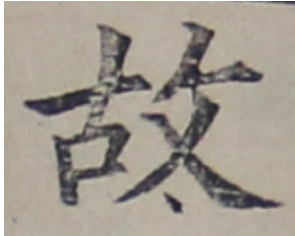


<그림 13> 第25張2面 第2行 下段 小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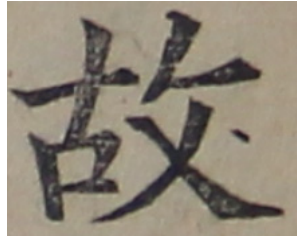
백천사 소장 『圓覺略疏注經』에는 原文의 漢字를 최대한 정밀하게 翻譯하고자 하여 墨書點 符號를 音讀口訣과 함께 記入한 특징이 보인다. 예컨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의 <그림 14> · <그림 15> ·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漢字 ‘故’에 찍은 墨書點에서도 그 證據를 찾을 수 있다.⁵³⁾ <그림 14>에서 <그림 16>까지에 사용된 漢字 ‘故’字는,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은, 百泉寺本の 第10張2面の 第5行에서 ‘第1·10·11字’로 인쇄되어 있는 글자들이다.

百泉寺本 ‘第10張2面 第5行’이라는 동일한 張次와 行次에 나타나는 이들 ‘故’字를 『圓覺經諺解』 등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의 ‘예문 (1)’에서와 같이, 墨書 記入字가 漢字 ‘故’를 새김 가운데, 각기 다른 새김을 밝혀 적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53) 漢字 ‘故’는 中世韓國語 諺解資料에서 그 새김이 대략 13가지로 나타나는데, ① ‘넛’ <『두시언해』 초8-35>, ② ‘전츠’ <『법화경』 3-165>, ③ ‘그런드로’ <『금강경삼가해』 3-29>, ④ ‘그릴시’ <『야운자경』 44>, ⑤ ‘늑다’ <『법화경』 2-105>, ⑥ ‘-르씩’ <『법화경』 4-187>, ⑦ ‘고로’ <『관음경』 1>, ⑧ ‘-모로’ <『소학언해』 범례1>, ⑨ ‘그저’ <『법화경』 2-219>, ⑩ ‘부러’ <『용비어천가』 64>, ⑪ ‘연고’ <『신증유합』 下17>, ⑫ ‘짐죽’ <『용비어천가』 64>, ⑬ ‘짐즐’ <『두시언해』 초10-6> 등이 그것이다. 이때의 ‘넛’은 現代國語의 ‘옛, 지나간 때의’라는 뜻이고, ‘전츠/연고’는 ‘까닭, 사유’, ‘그런드로/-고로/모로/르씩/그릴시’는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늑다’는 ‘오래되다/달다’, ‘그저’는 ‘그냥, 변함없이 이제까지’, ‘부러’는 ‘실없이 거짓으로’, ‘짐짓’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라는 뜻이다.



<그림 14> 10張2面 第5行1字



<그림 15> 10張2面 第5行10字



<그림 16> 10張2面 第5行11字



<그림 17> 백천사 소장본 「圓覺略疏注經」, 第10張2面第4行6字 ~ 第10張3面第1行1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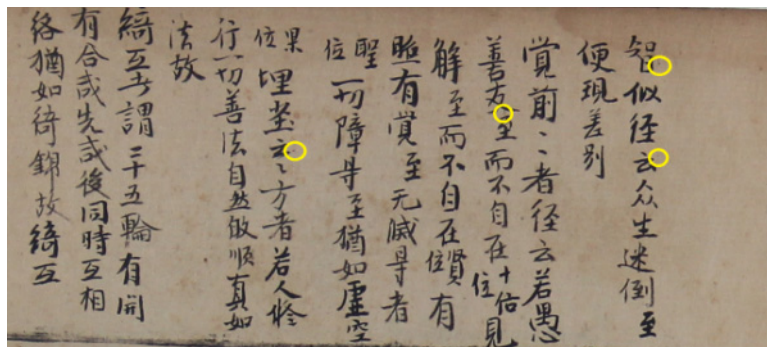
- (1) [百泉寺本] “四 隨一一文 衆解 不同故 五 多種說法 成枝流故 故 不可分(第10張2面 4行 ~ 제10張 3面 1行)”

[언해본] “네 혼 一一文을 조차 모든 아로미 곁디 아니 혼 전치로 다스손 여러가짓 說法이 枝流 | 드외는 전치니 그럴시 논호미 묻호리니(『圓覺經』 上卷一之一-22ㄴ~23ㄱ)”

[현대역] “넛은 하나하나의 글을 따라 모든 얹이 같지 아니한 까닭이요, 다섯은 여러 가지 설법이 枝流가 되는 까닭이니 그러므로 나눌 수 없으니”

<그림 14>는 ‘전치로’(까닭이요), <그림 15>는 ‘전치니’(까닭이니), <그림 16>은 ‘그럴시’의 새김에 각각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림 16>의 경우는 漢字 ‘故’에 음독구결 ‘... (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묵서점과 함께 새김을 밝힌다면, 한자 ‘故’의 새김이 ‘그럴시’가 아닌 ‘그런드로’(그러므로)가 되도록 표기한 것이다.

또한 百泉寺本の 경우, 아래의 <그림 18>과 같이,⁵⁴⁾ 原文의 欄上과 欄下の 細注에도 角筆(點吐)이 달렸다는 점 또한 매우 特異하다.



<그림 18> 「圓覺略疏注經」 第7張1面 欄上, 細注 문자의 점토 (동그라미(○) 표시 속)

요컨대, ‘백천사 소장 『圓覺略疏注經』 卷上’에記入된 角筆과 口訣에서 특히 ‘ㄴ ㄹ ㄱ ㄴ ㄹ ㄱ / ㄴ ㄹ ㄱ ㄴ ㄹ ㄱ’의 記入時期는 ‘적어도 麗末鮮初’로 糾明할 수 있으므로, 이 책은 늦어도 高麗末・朝鮮初(下限)의 時代에 이미 刊行되어 流通되고 있었음을 證明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 간행의 上限時期는 ‘角筆의 記入으로 보아 高麗時代로 보아야 함’이 自明하다.

5.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形態書誌

本章에서는 ‘백천사 소장 『圓覺略疏注經』 卷上’에 관한 形態書誌 사항을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이 책의 특징 및 가치 등을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자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木版本’으로 간행된 이 책은 현재 ‘1冊(上卷)’ 殘卷으로 남아 있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34.0cm, 가로 18.9cm’이다.

2) 表紙는, ‘原書의 표지’와 ‘改裝된 표지’ 2개가 重疊되어 있다. 原書의 표지에 墨書된 題簽題는 ‘圓覺經’이며, 題簽은 ‘흰색 楮紙’로 그 크기는 ‘세로 14.8cm, 가로 3.7cm’이다. 개장된 표지의 제침은

54) 이 細注는 <그림 1>의 右側 寫眞으로 제시된 <宗密 序>의 첫 張 邊欄 上部에 記入되어 있는 부분이다.

목서가 없이 ‘餘白’으로 남아있으며, 그 크기는 ‘세로 22.1cm, 가로 3.8cm’이다.

<표 2> ‘백천사 소장본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形態書誌 조사 사항

- 題 簽 題 : 圓覺經(墨書, 14.8 × 3.7cm)
- 卷 首 題 : 大方廣圓覺略疏注經
- 卷 末 題 :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 版 心 題 : 序上一, 上一(張次)
- 저자사항 :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 述
- 판 사 항 : 木板本
- 간행사항 : [13-14世紀: 高麗末]
- 형태사항 : 1冊. 上下單邊 左右雙邊: 21.7 × 14.0cm, 有界, 5行 13字, 註雙行: 34.0 × 18.9cm. 線裝
- 序: (金紫光祿大夫守中書侍郎兼戶部堂書同中書門下平章事充集賢殿大學士 裴休 撰) 夫血氣之屬 … 其他備乎
本書云
- 張 數 : 36張141面(4面 1張. 序文: 18面, 卷上 本文: 123面)
- 주기사항 :
 - ① 序文: 唐, 裴休 序: ‘1面 5行 12字’, 本文 ‘5行 13字’와 차이가 있음에 留意.
 - ② 原書의 裝幀 형태는 ‘包背裝’이며, 後代에 짚은 紺色 表紙를 덧대고 五針眼釘法으로 改粧.
 - ③ 序文, 本文, 注釋에 ‘ㄱ’, ‘ㄴㅁ女ㅁ’, ‘ㄴㅁㅁㅁ’ 등의 口訣 있음.
특히 ‘ㄴㅁㅁㅁ / ㄴㅁㅁㅁ’(호야들사가)의 表記는 麗末鮮初의 口訣임.
 - ④ 序文과 本文에 ‘이’ ‘호고’, ‘호시며’ 등의 한글 懸吐 있음.
- 종이두께 : 0.06~0.09mm. 세로 발끈 폭: 2.0~3.5cm(종이마다 다름),
발 측수: 3cm당 12~16측(종이마다 다름).
- 색 차 값 : (卷上 卷首題面 앞면 上段) L 72.0, a+ 10.4, b+ 22.4
- 본문구성 : 大方廣圓覺略疏注經序 /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3) 百泉寺本の 卷首題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이며, 그 다음 行에 序文의 撰者 사항으로 ‘金紫光祿大夫守中書侍郎兼戶部堂書同中書門下平章事充集賢殿大學士 裴休 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版心 부분에서는 版心題인 ‘序上一’과 ‘上一’ 그리고 張次가 표기되어 있다. 序文과 本文에는 墨書로 된 한글 懸吐가 있다. 序文·本文·注釋에는 墨書로 된 口訣이記入되어 있다. 行間 및 欄上, 欄下 일부에도 墨書가記入되어 있다.

4) 百泉寺本の 원래 裝幀은 ‘包背裝’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包背裝은, 우리나라의 경우, 麗末鮮初 刊本の 裝幀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의 현재 裝幀 상태는, 이 包背裝의 裝幀 위에, 後代에 이 책을 補強하기 위하여, 짚은 紺色 表紙를 덧대고 五針眼釘法의 線裝으로 改粧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본래 卷子本이나 折帖本 형태를 염두에 두고 板刻한 木板에서 인쇄한 것을 包背裝으로 製冊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⁵⁵⁾

5) <표 2>의 ‘형태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百泉寺本の 版式 사항은, ‘4面 1張’의 체제에서 ‘上下單邊 左右雙邊’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중국(宋)

55) 이러한 包背裝의 형태에서, 後代에 다시 線裝으로 粧冊한 것이 바로 현재의 책 모습이다.

現地에서 11世紀 後期에 직접 板刻하여 그 목판 전체를 고려로 보내온 <보물 제891호> 『大方廣佛華嚴經疏』卷42⁵⁶⁾의 版式과 字體 등이 恰似하고, 宋板 翻刻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上下單邊 左右雙邊’의 版式은 ‘宋板本の 典型的인 樣式’이다. 실제로, 百泉寺本の 경우, ‘第4・16・20・35・36張’에서는 ‘上下單邊 左右雙邊’의 宋板本の 典型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⁵⁷⁾ 그 나머지 張에서는 모두 각 張 ‘第1面의 右側 세로邊은 斷邊이고, 第4面의 左側 세로邊은 雙邊’이라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⁵⁸⁾⁵⁹⁾ 따라서 百泉寺本은 중국에서 전래된 宋板本에 입각하여 고려에서 翻刻한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⁶⁰⁾ 그리하여 이 책의 형태사항은 “1冊. ‘上下斷邊 左右雙邊’, ‘半郭: 21.7 × 14.0cm’, 有界, 5行 13字, 註雙行”으로 나타나고 있다.

6) 百泉寺本の ‘第4・16・20・35・36張’에서 확인되는 ‘上下單邊 左右雙邊’이라는 宋板本の 典型은, ‘보물 제893호’에서도 그대로 同一하게 나타나며, 여타의 板式 및 字體 등도 同一한 특징을 보인다⁶¹⁾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따라서 이들 두 자료는 同一한 翻刻版에서 인쇄한, 이른바 ‘同一板本’일 蓋然性이 濃厚하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이들 두 板本의 一致性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두 책에서 주목될 정도로 드러나는 인쇄상의 특징, 즉 ‘邊欄(匡廓) 및 界線의 缺落 부분’・‘글자劃의 각 부분에서의 脫劃 현상이나 이지러짐(缺劃)’ 등등의 문제들을 도출하여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同一板本의 與否 문제를 檢證해 보고자 한다.

① 먼저 ‘邊欄의 缺落’ 측면에서 檢證하면, <그림 19>의 左側 사진(百泉寺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세로邊 邊欄의 缺落 부분의 위치와 크기가 주목된다.⁶²⁾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19>의 右側 사진(보물 제893호)의 세로邊에서도 ‘同一한 위치 및 그 크기’로 그 邊欄의 缺落 현상이 一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6) 이 折帖裝의 圖書는 중국 ‘唐 澄觀의 『華嚴經疏』’에 ‘宋 淨源法師 注解’를 결합한 책으로, 淨源法師가 主導하여 중국 現地에서 板刻한 宋板 전체를, 宋 商人 徐戡에 의하여, 高麗 大覺國師 義天에게 전달된 木板에서 인쇄한 책이다. <보물 제892(卷28-30), 959(卷97), 946(卷41), 1013(卷68), 1106(卷84・100・117), 1124(卷30), 1128(卷21・24), 1409(卷48・64・83)> 등이 現存하고 있다. 이 佛典의 木板들은, 조선 世宗 때 ‘大藏經版을 달라’고 하는 일본측의 요구에 대장경판을 대신하여 이 木板을 下賜해 주었다는데, 그 후 일본에서 火災로 逸失되었다고 한다.

57) 이는, 典型的인 宋板本에서는 ‘第1張1面의 右側, 第2張2面의 左側’의 세로邊이 ‘雙邊’이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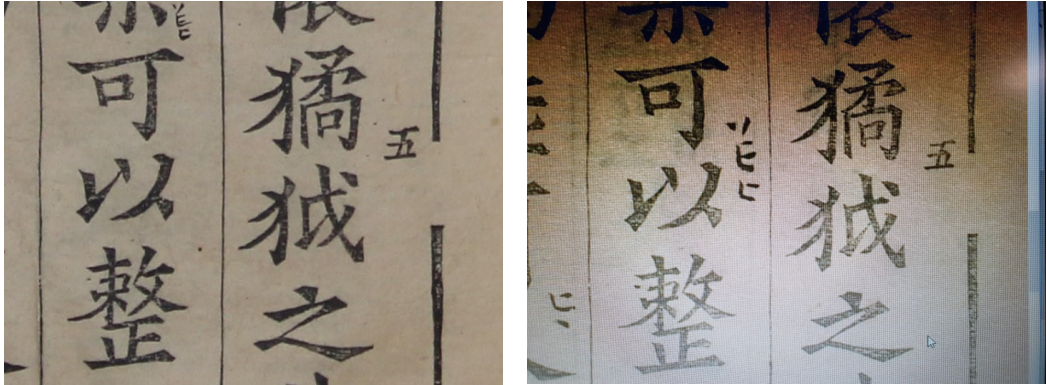
58) 이는 아마도, 고려에서 宋板本을 翻刻할 당시, 각 張 第1面 右側의 세로邊을 雙邊으로 판각하기가 번거로워서, 單邊化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다.

59) 이 책의 版式에서는 ‘第2面 左側’ 및 ‘第3面의 右側’ 邊欄이 없는 상태로 인쇄되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後代에 第2面 左側과 第3面의 右側에 邊欄을 먹(墨)으로 그려 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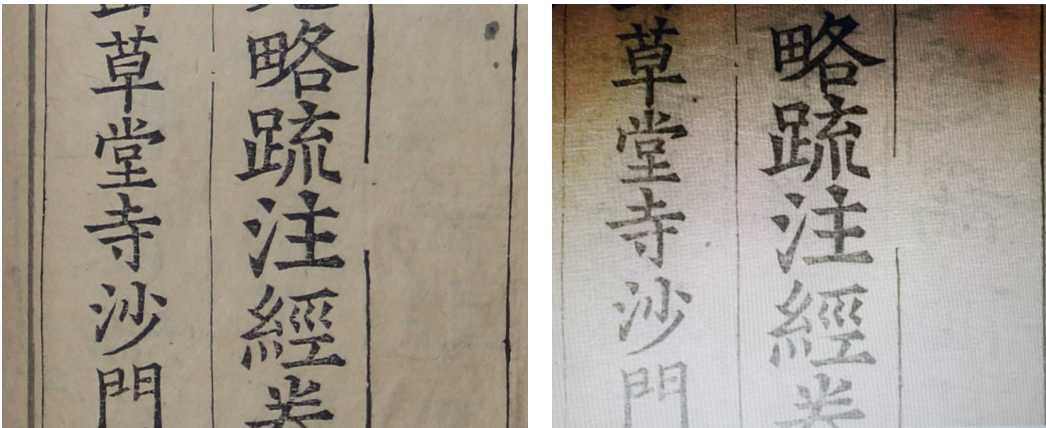
60) 本書의 경우, 그 저자가 중국(唐) 圭峰宗密(780-841)이고 序文을 쓴 이도 또한 裴休(797-870)인 점을 參酌하고, 이러한 版式을 勘案하면, 이 책은 宋나라 때의 板本이 高麗에 전래되고, 전래된 판본으로 고려에서 覆刻하여 간행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본문 1面의 字數와 行數는 ‘5行 13字’이다.

61)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7779/webs/search/proView/view_image_full.jsp) ‘<보물 제893호> 『圓覺略疏注經』 卷上’ 해당 원본이미지. 參照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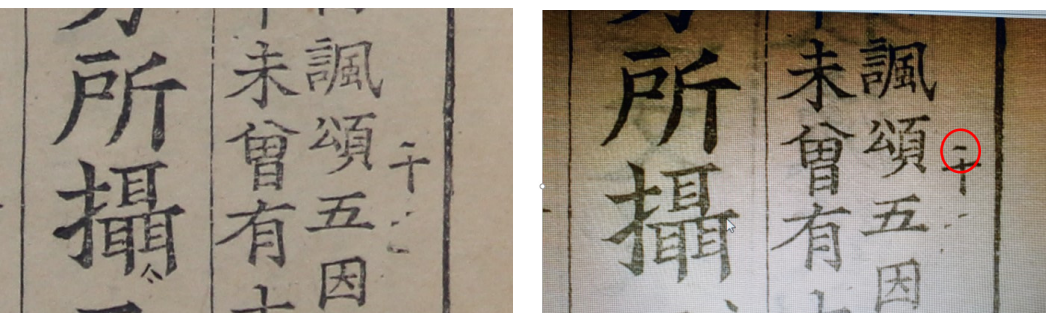
62) 즉 그 邊欄의 缺落 부분은, 백천사 소장본 第5張 1面의 次次 ‘五’字 제3획 部位의 右側 부분부터 그 邊欄이 缺落되기 시작하여, ‘序文 本文 ‘狹’字의 右旁 제3획과 4획의 교차부분의 윗부분까지의 위치까지’의 오른쪽에 위치하여야 하는 변란 부분이 缺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9> 百泉寺本(左) 및 '보물 제893호'(右) 第5張1面 右側 '邊欄의 缺落' 및 第5張1面2行10字 '整'字 左偏 '束'의 第2~3劃 部分의 奪劃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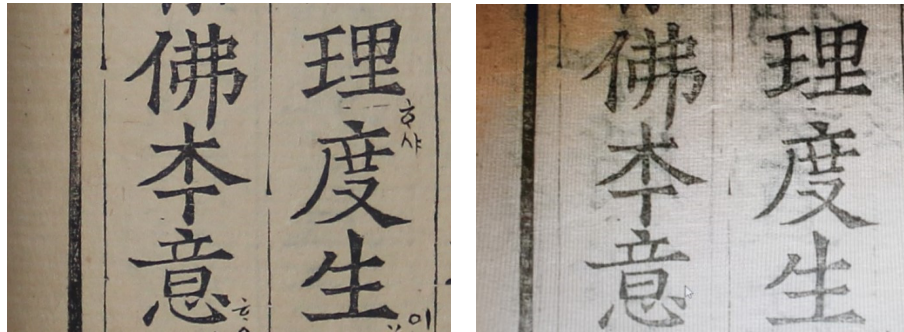


<그림 20> 百泉寺本(左) 및 '보물 제893호'(右) 第5張2面 卷頭題 右側 界線의 缺落



<그림 21> 百泉寺本(左) 및 '보물 제893호'(右)의 第10張1面 張次 '十' 윗부분의 異常 文樣의 殘留

- 63) ① <그림 19> ~ <그림 26>의 左側 사진: 백천사 文化財 現場調査時 대상 古書, 필자 직접 촬영.
 ② <그림 19> ~ <그림 26>의 右側 사진: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7779/webs/search/proView/view_image_full.jsp) '보물 제893호'의 해당 부분 '원본이미지 보기'에서의 확대 이미지를 모니터 상에서 촬영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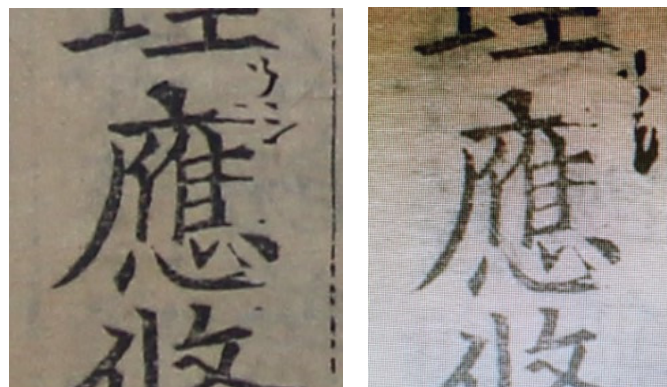
<그림 22> 百泉寺本(左) 및 '보물 제893호'(右) 第8張4面5行6字 '本'字의 奪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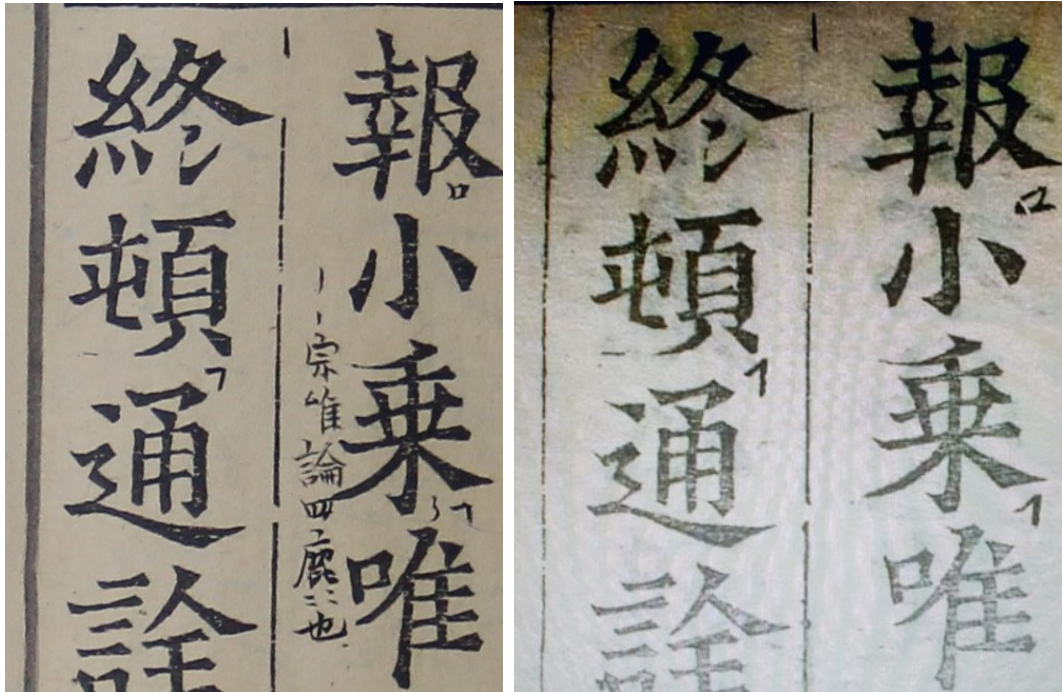
<그림 23> 百泉寺本(左) 및 '보물 제893호'(右) 第6張3面4行8字 '本'字 下段의 奪劃



<그림 24> 百泉寺本(左) 및 '보물 제893호'(右) 第8張3面2行8字 '本'字 下部劃의 어긋남(缺)



<그림 25> 百泉寺本(左) 및 '보물 제893호'(右) 第9張1面4行9字 '應'字 劃의 多數 離奪



<그림 26> 百泉寺本(左) 및 '보물 제893호'(右) 第15張2面 第5行 右側 界線의 部分 缺落

이러한 증거는 '이 두 책을 인쇄할 당시 목판 板刻面의 邊欄 缺落의 위치와 크기가 同一하다'는 의미이며, 결국 이 두 책은 同一 板本임이 立證된다.

② <그림 19>에서는 '글자 획의 奪劃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百泉寺本 및 '보물 제893호'인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第5張1面2行10字인 '整'字의 경우가 주목된다. 즉 <그림 19>의 왼쪽 사진(百泉寺本)의 '좌측 下段'에 위치하는 '整'字의 上部 左偏의 '束'의 第2~3劃 부분에서, '제2획(세로획)의 윗부분 및 제3획(가로획)의 시작 부분의 일부가 逸奪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19>의 오른쪽 사진(보물 제893호)의 '整'字 중 '束'에서도 그 '획의 逸奪 현상'이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남으로써, 결국 左右의 사진에서 '整'字 奪劃의 모양과 크기가 一致함을 파악할 수 있다.

③ <그림 20>에서는 '界線의 缺落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0>의 왼쪽 사진은, <그림 1>의 오른쪽 사진의 右側 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卷頭題 부분의 일부이다. <그림 20>의 左右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卷頭題 부분의 '疏'字와 '注'字 오른쪽에 위치하는 '界線의 缺落의 위치 및 그 크기가 一致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림 21>에서는 이들 인쇄본에 적혀있는 '異常 文樣의 殘留 현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의 左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百泉寺本 第10張의 張次 '十'의 윗부분에는

물결무늬 비슷한 異常한 文樣이 殘留하여 그 인쇄된 상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異常 문양은 <그림 21>의 右側 사진(보물 제893호)에서도 張次 ‘十’의 윗부분에서, 別途로 표시한 동그라미 속에, 물결무늬의 文樣이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⁴⁾ 따라서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는 인쇄하는 목판의 同一한 상태에서 함께 인쇄(同時印刷)된 것임이 立證된다.⁶⁵⁾

⑤ <그림 22>에서는 목판에 새겨진 특정 글자의 奪劃 현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2>의 왼쪽 사진인 百泉寺本 ‘第8張4面5行6字’인 ‘本’字 하나만 집중하여 보면, 이 글자의 형태는 흡사 ‘木’字와 ‘丁’자를 세로로 결합한 글자처럼 誤認하기 쉬울 정도이다.⁶⁶⁾ 이 ‘本’자의 제2획(세로획)과 제5획(가로획)이 교차하는 지점의 그 윗부분인, 세로획의 下段이 이른바 ‘V’자 형태로 奪劃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22>의 오른쪽 사진(보물 제893호)에서도 同一한 형태의 ‘획의 逸奪(奪劃)’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는 同一板本임이 확인된다.⁶⁷⁾

⑥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의 ‘第6張3面4行8字’에 나타나는 ‘本’字 下段의 奪劃 形態는 <그림 22>의 경우와는 조금 相異하다.⁶⁸⁾ 좌우간 이와 같은 현상도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가 同一板本이라는 또 다른 근거의 제시 사항으로 들 수 있다.

⑦ <그림 23>에서 또 하나의 特異 사항은, ‘本’字(第6張3面4行8字)에 대한 左右의 사진에서 共히, ‘本’자의 세로획 下段部에 이른바 ‘白色의 가로線’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⁹⁾ 이처럼 ‘특정 글자에 나타나는 特異한 현상에 대한 一致性’에 의하여, 百泉寺本과 ‘보물

64) 이러한 인쇄 현상은, ‘이 책들을 인쇄하기 위하여 준비된 목판 板刻面에 殘留하고 있는 異常 文樣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두 책이 同時에 인쇄되었다’는 상황을 추정하게 하여 준다.

65) 그밖에, <그림 21>의 左·右의 사진에서는, ‘張次 ‘十’字의 아랫부분’과 第1行의 ‘五’字 사이에 ‘斜線처럼 생긴 點劃 2개가 그 인쇄상에 同一하게 찍혀져 있음도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 역시 板刻된 木板 위에 잔류하는 일종의 文樣이나 點劃이 찍힌(인쇄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위 左·右의 사진에서 이러한 잔류 문양까지 똑같이 찍혀져 있다는 것은, 바로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는, 그 어느 時期에 이 목판의 훼손 정도가 同一한 상태에서, 同時에 인쇄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66) ‘本’字가 포함된 이 문장의 원래 구절은, “若原佛本意 則唯爲一大事因緣故 [出現於世](만약 부처님의 본래의 뜻을 캐어보면,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셨으니])”라 하여, ‘本’字임이 분명하다.

67) 위와 같이 특정 글자의 획이 特異한 형태로 逸奪(奪劃)되는 원인은, 아마도 ‘목판 위에 먹을 문힌 먹술질을 수도 없이 반복할 때, 어떤 특정한 글자의 경우에는 그 특별한 劃數 부분에 特異한 磨耗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의 경우, <그림 22>의 ‘本’자에 나타나는 奪劃 현상과 類似한 현상은, ① <그림 23>과 ② <그림 24>를 비롯하여, ‘③ 제5장2면3행1자, ④ 제5장3면2행8자, ⑤ 제9장1면2행7자, ⑥ 제10장2면2행5자, ⑦ 제10장3면4행11자, ⑧ 제13장1면2행4자, ⑨ 제13장1면3행13자, ⑩ 제13장3면2행6자, ⑪ 제14장3면3행12자, ⑫ 제14장3면5행7자, ⑬ 제15장2면5행7자, ⑭ 제16장1면5행1자, ⑮ 제18장1면5행11자, ⑯ 제18장4면1행8자, ⑰ 제29장1면4행13자’ 등의 ‘本’자에서 그 奪劃 현상이 조금씩 변형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反面에, ‘① 第25張3面5行(大字第)2字, ② 第32張4面4行(大字第)5字, ③ 第35張3面4行11字’의 ‘本’자는 그 本來의 原形 글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本’字 小字의 경우에도 大字의 奪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第9張1面3行9字(小字第1字)’에 위치하는 ‘本’字 등등이 그러하다.

68) 즉 이른바 ‘V’자 형태의 奪劃에서 그 왼쪽은 덜 磨耗되고, 오른쪽의 탈획 모양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편이다.

69) 이는 아마도 板刻이 완료된 후, 어느 時點에서 刻板의 이 글자 부분에 ‘雕刻刀’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칼자국’이거나, 아니면 ‘木理의 離脫’에 起因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제893호'가 同一 板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⑧ <그림 24>의 左右의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本'字의 제2획(세로획)과 제5획(가로획)의 교차 부분인 '十' 部位의 異常한 형태를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글자의 변형 형태는, <그림 22> 및 <그림 23>의 현상과는 '또 다른 형태의 奪劃 현상'이라 볼 수 있다.⁷⁰⁾ 좌우간 <그림 24>의 좌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字의 異常 變形 형태마저 一致하는 현상에서도,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는 同一 刻板에 의하여 同時에 인쇄된 板本이라는 점을 立證해 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⑨ <그림 25>에 제시된 '應'字(第9張1面4行9字)의 경우, 左側의 사진(百泉寺本)에서의 '應'자를 먼저 살펴보면, ㉑그 제2획(가로획)의 오른쪽 마지막 부분의 획 사이 중간 部位가 缺落된 것을 알 수 있다. ㉒'應'자의 제11획(가로획)의 오른쪽 부분은 완전히 逸奪되고, ㉓제13획(가로획)의 오른쪽 부분의 가로획은 거의 奪落되면서, 그나마 제13획의 오른쪽 부분의 마지막 部位는 겨우 살아남아, 이 획의 마지막 部位 殘劃은 마치 '點'과 같은 형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된다. ㉔'應'字의 下部인 '心' 부분의 제2획 下端 오른쪽 마지막 부분에서 '삐침'이 시작되는 部位의 획 전체가 逸奪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¹⁾ 그리하여, '應'字 한 글자 내에서만 그 奪劃 현상이 무려 '4군데'나 나타나고 있음이 注目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25>의 오른쪽 사진(보물 제893호)의 '應'字에서도 이러한 奪劃 현상이 百泉寺本과 '同一한 위치와 同一한 크기로 一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글자('應') 內의 多數 部位의 劃들에서 特異한 形態로 奪劃되는 현상들이 서로 一致한다는 것은, 역시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가 同一板本임을 立證하는 극명한 사례라 할 것이다.

⑩ <그림 26>에서는 界線의 다소 긴 특정 부분의 逸奪에 의한 '界線의 多數 부분의 缺落 현상'을 주목하였다. 즉 <그림 26>의 왼쪽 사진은 百泉寺本 '第15張2面 第5行'에서 '終頓通詮'이라는 '第1~4字'의 右側에 위치하는 界線의 缺落 현상을 보면, 이 계선은 ㉑시작되는 단계에서, 먼저 계선이 잠시 끊어졌다가, ㉒다시 짧은 계선이 보이고, ㉓계선은 다시 '終'자 세로크기의 절반 정도나 되는 길이만큼 그 끊어짐(斷缺) 현상을 보인다. ㉔그러다가 '終'자 右旁 제3획의 끝 部位의 우측 부분에서 계선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頓'자 右旁 제1획 가로획의 끝 部位의 우측까지 그 계선이 持續되다가, 다시 짧게 끊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㉕界線은 다시, '頓'字 右旁 '頁' 제2획 시작 部位의 높이에서 또 시작하여, '頁'의 제5획 部位의 높이에서는 點의 형태로 계선이 끊어지면서, ㉖그 끊어짐은 '頁'의 제5획과 제6획의 중간 높이까지의 크기만큼 逸奪된 현상을 보인다. ㉗그리하여 界線은 다시 나타나서, '通'자 우방 제4획의 세로획 하단까지 지속되다가, ㉘'通'자의 책받침 左偏의 끝획의 마지막 부분인 '삐침'의 끝 部位 우측에서 그 계선이 잠시 끊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百泉寺本 '第15張2面 第5行1~4字' 右側의 界線의 缺落 문제는, 무려 '4~5군데'나 크고 작은 一定한 형태로

70) 이러한 奪劃 현상 또한 목판을 인쇄할 때 수없이 반복되는 먹솔질의 결과, 그 글자 획의 異常 磨耗에 의한 글자형태의 變形된 사례라 볼 수 있다.

71) 이는 아마도 板刻이 완료된 이후, '雕刻刀의 誤作動' 또는 '사소한 실수로 인한 훼손' 결과로 보인다.

그 界線의 끊어짐(斷缺)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그림 26>의 右側 사진(보물 제893호)에서도, 그 ‘界線의 끊어지고 이어지는 여러 위치와 그 길이 또한 左側 사진(百泉寺本)과 완전 一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결국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는 同一板本임을 克明하게 立證하는 事例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그림 19> ~ <그림 26>에서,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의 板本에 나타나는 인쇄상의 특징, 즉 ‘邊欄의 缺落’·‘특정 글자 획의 奪劃’·‘界線의 缺落’·‘異常 文樣의 殘留’·‘異常 磨耗에 의한 글자 획의 奪劃’ 등의 여러 현상들을 각각의 사진으로 제시하고, 이들 사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10개 사항에 걸쳐 서로 비교하여, 이들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그 위치와 크기 등이 相互一致함을 파악함으로써,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는 同一板本임을 立證하였다.

7) 百泉寺本의 종이(紙質)는 ‘楮紙(닥종이)’이다. 책 卷首題面 등 각 인쇄면의 邊欄 上段을 기준으로 하여 그 종이두께를 측정하여 본 결과, <표 2> 및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종이의 두께는 ‘0.06~0.09mm’ 등의 비교적 넉넉한 종이두께를 나타냄으로써, 종이마다 그 두께가 서로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각 종이의 品質은 ‘매우 良好’하며, ‘홀장’의 종이뜨기로 제작된 종이임을 알 수 있다.

<표 3>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및 고려시대 인쇄본 등의 종이 두께 등⁷²⁾

연번	書名 등	간행년도	종이 두께	종이 造成方法
1	사천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高麗 14世紀]	0.06~0.09mm	홀장 ⁷³⁾
2	사천 백천사 소장 高麗本 「詳校慈悲道場懺法」 卷1·2	[14世紀初]	0.06mm	홀장
3	사천 백천사 소장 덕이본 「六祖壇經」	1300	0.06mm	홀장
4	鐵兵大藏經: ①「대방광불화엄경」 권59, ②「유가사지론」 권45, ③「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④「보살다비니비바사」 권2, ⑤「제경요집」, ⑥「대반야바라밀경」	[1012] ⁷⁴⁾ ~ 1232 以前	0.12mm	겹장
5	장서각 소장 목판본(취암사 刊)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1378	0.06mm	홀장
6	장서각 소장 乾統2年 刊記 「藥師經」	1102	0.06mm	홀장
7	<朝鮮> 朝鮮初期 寺刹本の 종이두께	1392 ~	0.04~0.055mm (0.0475mm: 평균)	不明[홀장]
8	朝鮮初期 官本(冊紙)의 종이두께	1392 ~	0.09~0.15mm	不明[겹장]
9	山淸 修禪寺 소장 「大般若波羅蜜經」 ⁷⁵⁾ [再雕大藏經]	[麗末(鮮初) 印刷]	0.09~0.12mm	不明[겹장?]

72) ① ‘연번 2-6’의 데이터: 김성수, “새로 발견된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150. 參照.

② ‘연번 7-8’의 데이터: 정선영, “朝鮮初期 冊紙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 181. 參照.

③ 연번 9의 데이터: 경상남도, 「2018년 제2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보원추진단, 2018. 6), 44-46.

73) 실제로 지금도 韓紙를 뜰 때, 외발로 뜬 축축한 종이(濕紙) 2장을 반대 방향으로 겹쳐서 1장의 두꺼운 종이를 造成하면 곧 ‘겹장’이라 한다. 濕地 1張만으로 종이를 만들면 ‘홀장’이라 한다. 2012년 9월에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14회 원주한지문화제”에서 韓紙 匠人이 종이를 직접 뜨는 과정에서, 濕紙를 두 장으로 포개어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麗에서 12~14世紀에 간행된 佛書(연번 2·3·5·6)들의 종이두께는 모두 '0.06mm, 홀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의 종이두께는 '0.06~0.09mm, 홀장'으로, 위의 佛書(연번 2·3·5·6)들의 종이두께와 類似하면서도, 그 두께가 좀 더 넉넉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⁷⁶⁾ 반면에 朝鮮初期 寺刹本(연번 7)의 종이두께는 '평균 0.0475mm'에 불과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 자료인 「圓覺略疏注經」을 비롯한 高麗時代 寺刹 刊行本과는 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에 대한 종이두께의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高麗 後期(14世紀)에 간행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8) 百泉寺本을 인쇄한 종이의 '발촉수' 및 '발끈폭'은, <표 2> 및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cm內 발의 촉수는 '12~16촉'으로 종이마다 다른 특성을 보인다. 세로 발끈폭은 '2.0~3.5cm'이며 또한 종이마다 다르다. 색차 값은 'L70.0/a+10.4/b+22.4'이다.

<표 4>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및 고려·조선 시대 종이의 발촉수 및 발끈폭⁷⁷⁾

연번	書名 등	간행년도	발촉수 ⁷⁸⁾	발끈폭
1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高麗 14世紀 推定]	12~16촉 (종이마다 다름)	2.0~3.5cm (종이마다 다름)
2	백천사 소장 「詳校慈悲懺法」	[14世紀初]	17촉	2.5cm
3	백천사 소장 「六祖壇經」	1300	17촉	2.5cm, 2.8cm 混在 ⁷⁹⁾
4	장서각 소장 목판본(취암사 刊)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1378	17촉	1.5cm
5	장서각 소장 乾統2年 刊記 「藥師經」	1102	17촉	不明
6	山淸 修禪寺 소장 「大般若波羅蜜經」 [再雕大藏經版]	[朝鮮 初其 推定]	21촉	2.5cm
7	〈朝鮮〉太祖~太宗年間 종이	1392-1418	12~15촉	2.3cm
8	世宗年間 종이	1418-1450	21~24촉	1.7cm
9	文宗~成宗年間 종이	1450-1494	15~18촉	1.7~1.8cm

종이를 뜯 사례(<http://blog.naver.com/traveloisoo/100181780817>)가 있다. 홀장은 종이를 빛에 비추어 보면 그 섬유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남. 겹장은, 홀장 2張을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덧붙였기 때문에, 그 섬유질의 文樣이나 그 흐름이 반대방향으로 중첩되어 있음이 확인됨.

74) 鎮兵大藏經(高麗 初雕大藏經)을 인쇄한 종이는, 1012년(顯宗 2) 2월 淸州 行宮에서의 '大藏經 板刻 祈告'하고, 바로 還都하여 대장경의 조조가 착수되었다고 보이나, 鎮兵大藏經을 간행한 연도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祈告의 시기는 그 최초의 인쇄시기로 추정하였음.

75) ① 刊記: 戊戌歲(1238)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② 裝幀: 折帖裝. 高麗初雕本은 卷子裝. 高麗再雕印出本은 初期에는 卷子裝, 高麗末의 印出本은 折帖裝의 形態.

76) '修禪寺 소장 「大般若波羅蜜經」'(연번 7)의 종이두께는 '0.09~0.12mm'의 현상을 보인다. 이른바 '고려 종이'의 특성이 보인다. 이하 여러 데이터와 情況으로 보아, 이 책은 高麗末에 간행된 것으로 推定된다.

77) <표 4>의 ① '연번 2~5, 7~8'의 데이터: 김성수, "새로 발견된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151. 參照. ② '연번 6'의 데이터: 경상남도, 『2018년 제2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2018. 6.), 44-46.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 佛典 종이(연번 2~5)의 발촉수는 '17촉'으로 동일하고, 조선시대의 종이는 이와 다른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번 2~5'에 제시된 고려시대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 발끈폭의 數値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위와 같이, 百泉寺本을 인쇄한 종이에서 그 '발촉수'와 '발끈폭' 및 '종이두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결국 종이를 만드는 工房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이 책을 간행한 寺刹에서는, 到處에 散在하는 工房에서 製造된 종이를 한꺼번에 收集하고, 그 당시의 品質基準이라 할 수 있는 종이두께 '0.06mm 이상'의 종이를만을 選別하여 그 인쇄에 활용한 결과에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백천사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을 인쇄한 종이는, '14世紀頃에 散在된 多數의 종이 工房에서 製造된 종이를 一時에 수집하고, 當時 종이두께의 기준(0.06mm)을 上廻하는 종이를 選別하여 活用한 것'이라고 糾明할 수 있다.

6. 結 論

이상의 본론에서 '百泉寺 所藏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에 관하여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은 '圓覺經'과 '圓覺經略疏'가 하나의 책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원각경'과 '원각경약소' 각각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각경'은, 末世衆生들이 이 經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斷無明 顯佛性(無明을 끊고 佛性を 드러냄)'함으로써 드디어 佛地(부처의 경지)에 到達할 것임을 약속하는 경전임을 알 수 있었다. '원각경약소'에서 圭峰宗密은 '華嚴學 · 『大乘起信論』 · 禪思想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원각경'을 해석함으로써, 당시의 모든 중심적 사상체계들이 바로 이 '원각경'을 통하여 재결합되고 재해석됨을 규명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 78) 발촉수: '종이 3cm 이내에 발 촉의 수'를 측정한 수치. 韓紙 종이를 뜯(抄紙) 때, 물속에 분해되어 떠있는 섬유를 한 겹으로 걸러내기 위하여, 아주 얇고 가늘다한(細) 대나무 쪽을 수백 개 이상 엮어 종이를 뜨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를 '발(簾·럼): 『天工開物』, 簾(책): 『林園十六志』 등)이라 한다(남권희, '고문서 종이의 형태', "초조대장경 종이 및 장정 분석 결과보고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백서』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14), 100, 102. 참고).
- 79) 발끈폭의 수치가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현상은, 발끈폭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사례를 의미함. 1933년 미국의 Dard Hunter는 중국 · 한국 · 일본 · 인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종지와 종이 제조과정을 관찰한 후 여러 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그 중 하나인 *Papermaking*에서 한국의 종이 및 제지과정을 설명하였다. Hunter는 한국에서 16세기 이후의 종이를 수백 장 관찰한 결과, '발끈폭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Dard Hunter, *PaperMaking*, 2nd ed.,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3), 96.)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닥종이(楮紙)의 생산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추정하게 하여 준다(남권희, '韓紙 제조 과정 및 특징,' "초조대장경 종이 및 장정 분석 결과보고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백서』, 101, 105의 脚註. 參考.).

그리하여 宗密의 『圓覺經略疏』는 裴休에 의하여 ‘大藏經의全體內容에 관한疏’라고 極讚되었으며, 당시 중국불교의 諸思想들을 包攝하여 解説하고 있으며, 특히 ‘『圓覺經』의 수행법이 가장 뛰어난을 論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기존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여러 판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은 ‘<보물 제893호> (재)아단문고 소장본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과 同一板本일 개연성이 농후함을 추정하였다. 특히 <보물 제893호>에 대한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의 書誌 및 解題’에서는, 이 판본이 高麗時代의 遺物이라고 糾明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에 記入되어 있는 角筆 및 口訣 사항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百泉寺本에 記入된 角筆은 高麗時代에 기입된 것이며, 墨書 口訣 중 특히 ‘ㄴ ㄹ ㅁ ㅂ / ㄴ ㄹ ㅁ ㅂ (하얏다사)’의 記入時期는 ‘적어도 麗末鮮初’로 糾明할 수 있으므로, 이 책은 高麗末・朝鮮初(下限)의 時代에 이미 刊行되어 流通되고 있었음을 證明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 간행의 上限時期는 ‘角筆의 記入으로 보아 高麗時代로 보아야 함’이 自明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百泉寺本)의 形態書誌 사항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그 결과,

1) 百泉寺本の 板式은 ‘上下單邊 左右雙邊’이라는 宋板本の 典型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판식은 ‘<보물 제891호> 『大方廣佛華嚴經疏』’의 板式과 字體 등이 恰似할 뿐만 아니라 宋板 飜刻의 特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百泉寺本 및 <보물 제893호>는 고려시대에 宋板本을 底本으로 飜刻한 板本임’을 파악하였다.

2)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의 인쇄상의 특징에 관한 상호 비교에서, 百泉寺本에 나타나는 ① 邊欄 缺落의 위치 및 크기, ② 界線 缺落의 위치 및 크기, ③ 특정 글자들의 奪劃과 어긋남(缺) 및 離奪, ④ 異常 文樣의 殘留 등의 諸現狀들이 <보물 제893호>의 인쇄상의 특징들과 똑같은(同一) 상태로 一致함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는, 이 책들을 인쇄할 당시의 목판 훼손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각 부분까지 일치하는 인쇄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百泉寺本과 <보물 제893호>는 共に 고려시대에 宋板本을 飜刻한 木板에서, 그 어느 특정 시기에 同時에 인쇄한 同一板本임을 立證하였다.

3) 百泉寺本을 인쇄한 종이두께는 ‘0.06~0.09mm, 홀장’으로, 고려시대 寺刹本の 종이두께 ‘0.06mm, 홀장’보다 조금 더 넉넉한 두께임을 파악하였다. 반면에 朝鮮初期 寺刹本の 종이두께 ‘0.045mm, 홀장’과는 確然한 差別을 보임으로써, 百泉寺本은 고려시대의 종이임에 틀림이 없음을 파악하였다. 게다가 百泉寺本을 인쇄한 종이의 발촉수는 ‘12~16촉’이고, 그 발끈폭은 ‘2.0~3.5cm, 종이마다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하여 고려시대 寺刹本の 발촉수는 ‘17촉’이고 그 발끈폭의 수치는 ‘서로 다름’의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朝鮮初期 寺刹本の 발촉수는 ‘12~15촉’ 또는 ‘21~24촉’이기 때문에 百泉寺本の 그것과는 相異함을 파악하였다. 朝鮮初期 寺刹本에 관한 발끈폭의 수치 또한 ‘2.3cm’ 또는

‘1.7cm’로, 이 또한 百泉寺本の 발근폭의 수치와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百泉寺本을 인쇄한 종이는 ‘14世紀頃에 散在된 多數의 종이 工房에서 製造된 종이를 一時에 수집하고, 當時 종이두께의 기준(0.06mm)을 上廻하는 종이만을 選別하여 活用한 것’이라고 糾明할 수 있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은 ‘<보물 제893호> (재)아단 문고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과 그 인쇄상의 여러 특징(界線 등의 훼손 상태 등)들이 서로 똑같이 一致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들 두 자료는 共히 高麗時代에 宋板本을 飜刻한 木板에서 同時代에 인쇄한 同一板本임을 立證하였다. 게다가 百泉寺本은 ‘<보물 제891호> 『大方廣佛華嚴經疏』’의 板式과 字體 등이 恰似할 뿐만 아니라 宋板 飜刻의 特徵을 지니고 있음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이 책은 高麗時代 즉 늦어도 14世紀頃에 刊行된 책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百泉寺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은 향후 국가문화재로 昇格되어야 할 고려시대의 貴重한 記錄遺産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百泉寺 所藏.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보물 제891호>. 『大方廣佛華嚴經疏』.

<보물 제893호>.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경상남도. 『2018년 제2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2018. 6. 44-46.

김성수.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 범보단경』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67집(2016. 9). 45-78.

김성수. “새로 발견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131-155.

김월운·정병조·김영길. “원각경의 세계.” 『經典의 世界』. 서울: 불광출판사, 1990. 802-815.

남경란. 『麗末鮮初 音讀 口訣의 종합적 고찰』. 서울: 경인문화사, 2005.

남경란. 『麗末鮮初 音讀 입꺄(口訣) 字形과 機能의 通時的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2009.

남권희. “고려말에서 조선중기까지의 구결자료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도서관학논집』 27(1998), 485-572.

남권희. ‘고문서 종이의 형태.’ “초조대장경 종이 및 장정 분석 결과보고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백서』.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14. 100-125.

남권희·남경란.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 연구』

제22호(2016). 199-248.

林柏亭 主編. 『大觀－宋版圖書特展』. 台北: 國立古宮博物院, 中華民國95年.

박용진 옮김. 『大覺國師文集』.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백두현. 『(고려시대 한국어 연구)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서울: 한국문화사, 2005.

신규탁. 『규봉 종밀과 범성교학』. 서울: 올리브그린, 2013.

신규탁 번역. 『원각경·현답』. 서울: 정우서적, 2013.

심재열 옮김. 『大覺國師文集 外』. 서울: 동국역경원, 1994.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大定新修大藏經』第55卷 目錄部全. 東京: 大定新修大藏經刊行會, 昭和3年(1928). 1165-1178.

이승철. 『우리 한지』. 서울: 현암사, 2002.

전해주·김호성 譯. 『원각경·승만경』. 서울: 민족사, 2013.

정선영. “朝鮮初期 冊紙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 177-212.

Dard Hunter. *PaperMaking*. 2nd ed.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3.

[웹사이트]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893호> 등.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보물 제891호>.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보물 제893호> 등.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www.aks.ac.kr>>.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

